

연구보고 228 / 1990. 12.

이농·탈농의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

민 상 기(책임연구원)
정 명 채(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경제·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의 농지유동화 촉진과제가 제기되면서 離農 문제가 주요 관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발전만을 지향하여 離農을 일방적이고 무분별하게 추진한다면, 그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離農民 개인은 물론 도시사회 문제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발전을 겨냥한 離農은 在村 농민의 적응력을 감안한 선택적 과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가구)의 성취 지위 상승을 위한 발전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在村 농가의 선택적 離農 가능성과 이들의 離農 저해 요인에 대한 탐색은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離農 유도를 위한 대책수립에 좋은 기초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1990. 12.

院長 許信行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3
4. 사례연구의 한계와 어려움	4

제 2 장 이론적 고찰

1. 이주와 적응 문제	9
2. 이주자의 적응 메카니즘	13

제 3 장 재촌가구의 이농 가능성과 이농 저해요인

1.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23
2. 이주자녀와 연결이주 가능성	27
3. 재촌가구의 이농 가능성과 이주 가능 경로별 문제점	33
4. 재촌가구의 이농 저해요인	41

제 4 장 이농민의 도시정착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1. 분석틀	44
2. 정착 유형별 적응사례	51
3. 가족 결합이주 가능성 사례분석	66
4. 이주경로와 도시정착 과정 사례	71

제 5 장 요약 및 결론.....

87

표·그림 목 차

第 1 章

표 1-1 조사지역과 조사규모	3
표 1-2 사례연구 대상자의 이출지와 현거주지	4
표 1-3 사례연구 대상자의 면접장소와 접촉빈도	6
표 1-4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 이유	7

第 2 章

그림 2-1 시계열선상에서 인구이동 과정	10
그림 2-2 인구이동의 2단계 과정	15

第 3 章

표 3- 1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구성	24
표 3- 2 가구주의 학력별 구성	25
표 3- 3 가구주의 직업별 구성	25
표 3- 4 농지소유·이용규모별 가구분포	26
표 3- 5 동거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26
표 3- 6 가구주와 관계별 부분 가족이주자	28
표 3- 7 부분 가족이주자의 성별 학력별 구성	28
표 3- 8 부분 가족이주자의 성별 이주 이유	29
표 3- 9 부분 가족이주자의 이주 이유별 이주지역	29
표 3-10 부분 가족이주자의 학력별 현재 직업	30
표 3-11 연령별 기혼별거 아들 수	31

표 3-12 학력별 기혼별거 아들 수	31
표 3-13 출타 시기별 기혼별거 아들 수	31
표 3-14 출타 이유별 기혼별거 아들 수	32
표 3-15 기혼별거 아들의 직업별 주택 소유형태	32
표 3-16 재촌가구의 이주 가능 유형별 분포	34
표 3-17 이주 가능 유형별 사회적 배경	35
표 3-18 이주 가능 유형별 농지소유와 이용	36
표 3-19 이주 가능 유형별 농지 처분 방법	37
표 3-20 완전 가족결합 이주형의 이주 대상 아들과 이주시기 ..	37
표 3-21 완전 가족결합 이주형의 이주 저해요인	38
표 3-22 이주 자녀의 도시 미정착 이유	38
표 3-23 이주 자녀의 도시 정착을 위한 해결(지원) 내용	39
표 3-24 이주 자녀의 도시 정착 소요기간	39
표 3-25 자녀의 이주 희망지역과 희망직업(종)	39
표 3-26 독단적 이주 가능형의 이주 계기	40
표 3-27 독단적 이주 가능형의 이주 희망지역	40
표 3-28 독단적 이주 가능형의 희망직업	41
표 3-29 재촌 가구의 개인적 이동 저해요인	42
표 3-30 재촌 가구의 도시적 이동 저해요인	43

第 4 章

표 4- 1 그린(Green)의 변수: 이입자의 적응 차원	45
표 4- 2 이온죽이 귀환이동 연구에서 분석한 도시적응 변수 ..	46
표 4- 3 이응교가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 연구에서 분석한 변수 ..	47
표 4- 4 이응교가 중점적으로 분석한 도시정착 과정	48
표 4- 5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변수	49
표 4- 6 사례연구 대상자의 정착상황 요약	64

빈

면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이 국제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도 규모의 경제 추구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농가경영규모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의 이·탈농에 의한 농지유동화 촉진과제가 농업발전론자들에 의해 주장되면서 이·탈농 문제가 정책적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농은 이농민에게 활동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꾸어야 하는 즉,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획득, 주거지 확보, 이웃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심리적 안정 등 해결하고 극복하여야 할 여러 가지 적응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적응 문제는 이주지에서 제공되는 적응기회, 개인의 사회, 경제, 심리적 특성과 적응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 등 여러 요인의 상호복합적 작용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적응에 실패하는 이농민은 도시이농 빈곤층 내지 노동빈민으로 전락, 사회주변층을 형성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제상황과 더불어 재촌농가 중에는 고령에 생산수단과 자본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적응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탈농은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탈농은 농업발전만을 지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가구(개인)의 성취 지위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과정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촌농가(농민) 중에서 어떤 농가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탈농시키거나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선택성의 문제와 이탈농을 개인의 발전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응력의 제고문제가 중요 관심영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재촌 농가의 이농가능성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농민의 도시정착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재촌 농민의 도시적응력 제고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여 이농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탐색하는 데 있다.

첫째, 이주자가 이입지에서 보다 효과적인 적응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주행태와 적응 메카니즘에 관한 내용을 기존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살펴본다.

둘째, 재촌가구의 선택적 이농 가능성과 이주 자녀를 연결고리로 한 가족결합에 의한 연결 이주의 가능성 및 이주가능 유형별 이주 경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셋째, 기존도시이농민의 도시정착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이 생업 및 주거 문제의 해결 등 도시적응을 위해 기울인 자원동원을

위시한 적응노력과 도시적응에의 도움적(또는 장애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재촌 가구의 이농에 대비한 적응력 제고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질문지조사, 사례연구를 하였다.

문헌연구는 이주자들이 이입지 생활에 적응하려고 경주하는 적응노력과 적응 메카니즘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주로 이주 행태와 정착과정상의 적응 행태에 관한 기준의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부분 가족이농 실태와 이주적 특성, 재촌가구주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선택적 이주가능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여 가구주를 대상으로 현지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한 조사지역과 조사규모는 <표 1-1>과 같다.

사례연구는 이농민 개개인의 이주상황, 도시적응 및 정착과정에서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응노력과 적응 메카니즘 등에 대한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자는 <표 1-1>의 5개 조사대상지역 중 충북 중원 주덕지역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전가족 이농자(또는 단신이농 후 결혼한 이농자) 중 재촌부모나 연고자를 통해 소재가 파악된 98명 가운데서 22명을 유의적으로

표 1-1 조사지역과 조사규모

		조사지역					계
		충남 논산군 채운면 애화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충남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대전시 서구 평촌 2동*	충북 중원군 주덕면 원신중리	
지대 조사호수	평야 43	중간 27	산간 40	도시근교 49	농공지구 41	200	

*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로 편입(대덕군 기성면 평촌리).

표 1-2 사례연구 대상자의 이출지와 현거주지

단위:명

출신지역별				현거주지역별					계
논산군 채운면 야화2리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대전시 기성동 평촌2동	서울	대전	청주	성남	기타	
9	1	8	4	7	7	2	2	4	22

선정한 후 추적조사에 의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자의 출신지역 및 현재 거주지는 〈표 1-2〉와 같다.

4. 사례연구의 한계와 어려움

가. 일반화의 한계

사례연구가 갖는 약점인 제한된 표본수의 사례만을 면접한데다 연구 대상자를 재촌가구주의 준거집단에 상응토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비공식부문이나 노동직 종사자로 한정하였다.

때문에 본연구의 사례분석 결과를 모든 도시 이입자의 경우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많은 결함과 무리가 있다. 그러함에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분석대상자와 유사한 이농대상자의 경우에 한정시킬 때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나. 대상자 파악과 조사상의 어려움

재촌가구주 중에는 이농자녀의 정확한 주소나 직장 등 거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자도 많이 있어 가구주를 통한 이농자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설사 자녀의 거처를 알고 있더라도 사회조사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거처를 알려주지 않으려는 가구주도 많아 이농자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가구주가 알려 준 거처도 그간의 거주지 변경으로 이농자를 추적할 수 없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

사회조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거처가 확인된 조사대상자 중에는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아예 조사협조를 거부하거나 또는 면접시에 정확한 진술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유형의 비협조자는 상업, 복덕방 등 자영업자로써 세금부과를 염려하는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또한 현재 적응상황이 어려운 국면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와 과거의 생활사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면접을 기피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 막벌이, 노점상을 생업수단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에 응하지 않았고, 귀가시간이 일정치 않은 데다 음주할 경우 면접상의 애로가 컸다. 면접대상자 중 집을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었고, 다방을 면접장소로 이용할 때, 주위 사람을 의식하여 솔직한 응답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면접대상자와 직접 통화시에는 그런대로 조사협조 받기가 용이하였지만 가족원과의 접촉시에는 주소 및 조사대상자의 소재파악에 대한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사례연구 대상자 22명에 대한 조사상의 특이사항과 조사협조 의뢰과정에서의 비협조 사유는 〈표 1-3〉과 〈표 1-4〉에서와 같다.

표 1-3 사례연구 대상자의 면접장소와 접촉빈도

피면접자	거주지	면 접 장 소	접 촉 상 의 특 이 사 항	조사 방문 회수	비고
정○○	대 전	집, 다방	부인(3회), 딸(2회)통화한 후 본인과 연결 만남	2회	
양○○	대 전	집	딸(4회)통화한 후 본인과 연결 만남	1	
이○○	대 전	병원입원실	부인(3회) 통화한 후 소재지(입원실) 파악 면접	2	
송○○	대 전	직장, 집	부인(2회) 통화후 직장을 파악하여 . 직장에 갔으나 만나지 못함	2	
남○○	대 전	직장, 집	부인(1회) 통화후 직장소재파악후 직장과 집에서 면접	2	
박○○	대 전	직 장	본인(1회) 통화후 직장(충남대부속병원) 에서 면접	1	
서○○	청 주	다 방	부인(1회), 본인(1회)통화후 집에서 만났으나 이웃 다방에서 면접	1	
양○○	서 울	직 장	부인(1회) 통화하여 직장소재파악후 본인과 통화후 면접	1	
정○○	서 울	집	가족원(3회)통화한 후 본인과 연결 집(사업장)에서 면접	2	
오○○	대 전	다 방	부인(2회) 통화후 직장소재파악 다방에서 면접	1	조사 비협조 조사중 거 조 부 사 부 사 부
정○○	조치원	집	본인과 통화후 면접	1	
김○○	서 울	복덕방	부인(2회) 통화, 본인(1회)통화후 면접	1	
윤○○	청 주	사무실, 집	부인(1회) 본인통화후 사무실겸 집에서 만남	1	
최○○	성 남	다 방	부인(1회) 본인(1회)통화후 본인과 만남	1	
천○○	성 남	다 방	부인(2회) 본인(2회)통화후 만나 다방에서 면접	1	
신○○	성 남	다 방	본인(3회)통화후 다방에서 면접	1	조사중 거 조 부 사 부
유○○	서 울	근무처	자부(2회) 통화후 근무처소재파악후 면접	1	
유○○	서 울	근무처	부인(1회) 통화후 근무처파악(부천) 사무실에서 조사	1	
조○○	서 울	다 방	부인(3회), 본인(2회)통화후 만나 집부근 다방에서 면접	1	
박○○	서 울	집	부인(3회) 통화후 집주소 알고 집으로 찾아가 면접	1	
양○○	서 울	집	부인(3회), 아들(2회) 통화한후 본인과 연결	1	
서○○	서 울	병원입원실	딸(2회) 통화후 주소파악 거절당한후 본인과 연결	1	
김○○	익 산	근무처	근무처(여산휴게소)로 찾아가 식당에서 면접	1	
이○○	남양주	집	집 방문조사	1	
노○○	인천	다방	부인(2번) 통화후 근무처 확인 본인과 2번 통화후 면접	1	

표 1-4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 이유

성명	출신지	현재직업	거주지	비협조 이유
박○○	논산	미장이	서울	반월로 이사
최○○	논산	건축 청부업	인천	지방으로 출타중
조○○	논산	생맥주 집	서울	부인이 그런조사하여 무엇하느냐며 남편소재지 및 집주소 알려주지 않음
이○○	논산	막노동	여주	연고자의 주소잘못 파악으로 찾지 못하고 다시 연고자에게 전화확인하여 통화하였으나 강원도로 품팔이
송○○	금산	상업	서울	본인 병원입원중이라 부인기피
정○○	금산	상업	서울	전화연결을 못함(5회)
송○○	금산	야채상	대전	부인을 시장에서 만났으나 면접협조거부
김○○	부여	미장	부천	연고자가 부정확한 전화번호 알려줘 소재미파악
김○○	논산	식당업	김포	집으로 찾아갔으나 본인 출타중
이○○	논산	상업	서울	본인 기피
윤○○	부여	공무원	서울	사생활 침해라며 의정부에 있는 형의 소재 알려주지 않음
이○○	부여	상업	서울	병원치료중이며 시간이 없다고 거절
양○○	금산	건축노동	대전	부인이 조사할 이유없다며 거절
김○○	논산	상업	금촌읍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제 2 장

이론적 고찰

인구이동은 이출과 이입으로 나누어 논의되며, 그 과정에서 ①누가, 왜 이동하는가(또는 이동하지 않는가), ②어디로, 언제, 어떻게, 이동하는가, ③이입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④이주의 결과 즉, 이주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물음과 관련하여 ①이주원인, ②이주지 선택, ③이주지에서의 적응, ④이주자와 이출지간의 상호작용 등이 인구이동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 관심영역이 되고 있다.

레벤스타인 (Revenstein)이 인구이동의 법칙을 발표한 이후 인구이동에 관한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여러 학문분야와 관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업적 모두를 개관할 수 없음으로 이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입지에서의 적응영역을 중심으로 이주행태와 적응 메카니즘에 관하여서만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이주와 적응 문제

이입지에서의 적응은 궁극적으로 이주 원인의 해결책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주자가 이입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는 정신적 불안의 극복, 새로운 직업 및 기술의 습득, 주거지의 확보, 이입지의 생활양식 및 문화가치의 습득 등이다.¹⁾ 그러나 이와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주자들은 이들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이주에 따른 적응의 문제는 이주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주를 적응의 메카니즘으로 파악하려는 대표적인 사람이 올퍼트 (Wolpert)이다. 즉, 그는 사람들이 환경적 긴장에 직면할 때 긴장의 해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현거주에서 본인 및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긴장을 해소시키거나 또는 긴장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뜻한다. 이 때 사람들은 이주를 하지 않고 현거주에 계속하여 머무를 것이다. 둘째 방법은 긴장의 극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긴장극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대안, 즉 이주보다 클 때는 거주지역을 옮기게 된다는 것이다.²⁾ 프리어 (Pryor)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이주는 현거주지역에서 이주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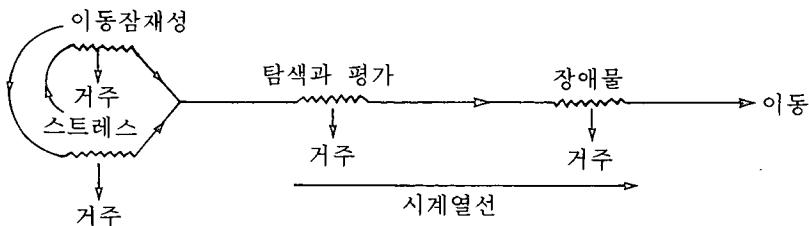
브라운 (Brown)과 무어 (Moore)도 이동과정을 두 가지의 심리적 단계

1) 권태환, “한국사회에 있어서 도시연구,” 「한국사회학」, 제18집, p. 16.

2) J. Wolpert, “Migration as an Adjustment to Environmental Stres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2(1966), pp. 94-95.

3) R. T. Pryor, “Conceptualizing Migration Behavior: A Problem in Micro-Demographical Analysis,”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Commission on Population Geography*, Massey University, Palmerston North, New Zealand, 1975, p. 32.

그림 2-1 시계열선상에서 인구이동 과정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첫번째 단계는 개개인의 긴급한 수요를 현재의 장소에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고자 결정하기까지 이고, 두번째 단계는 실제로 이동할 것인가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포함한다고 보았다.⁴⁾

이를 체계적으로 모형화하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환경적 긴장에 직면한 사람들이 일단 이주할 것을 결정하게 되면,
이주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불안을 고려하여 이입지 선택에 신
중을 기한다.

그레이브스(Graves) 와 그레이브스(Graves)는 많은 사람들이 이입지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그 지역에 연고자(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 등)가 있는지의 여부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주자가 이입지 생활에 필요한 물리적, 정신적 도움을 이들 연고자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유리성 때문이다.⁵⁾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이주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먼저 이주하여 이입지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4) L. A. Brown and E. G. Moore, "The Intra-Urban Migration Process: A Perspective," *Geografiska Annaler*, Vol. 52B, 1970, pp. 1-13.
 5) N. B. Graves and T. D. Graves., "Adaptive Strategies in Urba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3(1974), pp. 121-123.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⁶⁾

이주는 생활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입지에서 상당기간 불안정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의 원인에 대하여 아이전슈타트(Eisenstadt)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첫째는 이주자가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이주의 결과가 이주자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서 불안정이 유발된다고 한다. 이러한 불안정은 이주자의 역할기대와 이입지의 제도화된 규범을 상호 적응시킴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데, 이는 이주자의 행동 및 사회관계의 전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초래한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과정에서의 여러 형태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주자의 현지적응 과정은 이러한 긴장의 해결과정으로 보고 있다.⁷⁾ 멜빌(Melville)은 이주자의 적응연구에서, 이주자의 이입지에서의 긴장발생의 원천을 확대가족, 친척, 이웃, 문화적 환경과의 괴리에서 오는 고독(loneliness)으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긴장의 극복은 이출지와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킴과 동시에 이입지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이 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⁸⁾

이주자들이 이출지에서 가졌던 직업과 이입지에서 구하게 되는 직업은 다른 경우가 많으며, 특히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맥기(McGee)에 따르면, 이입지에서 이주자의 직업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주자의 교육수준, 재산, 도시경험 뿐만 아니라 먼저 이입하여 살고 있는 친척, 친구, 이웃 등 연고자의

6) C. Jansen, "Some Sociological Aspects of Migration," in J. A. Jackson (ed.), *Migra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p. 68.

7) 양종희, "중동취업 노동자의 현지적응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인 해외이주 : 중동사례」, 서울대 인구 및 발전 연구소, 1983. p. 202 재인용.

8) M. B. Melville, "Mexico Women Adapt to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2(1978), pp. 225-235.

도움 등을 들고 있다.⁹ 또한 그린(Green)은 이주자의 직업획득과 관련된 요인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이주자 부친의 직업이 사무직이면 이주자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부친직업이 육체노동인 경우에는 이주자도 또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고, 거주기간도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빈곤한 이주자들을 위한 주택개발은 미진한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은 주택의 구매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과잉인구로 인하여 주택개발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주자들은 남의 땅에 불법적인 건물을 짓거나,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친척, 친구 등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파테말라의 이주자들은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빌터나 판자촌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그들 주변에 주거지를 잡는다.¹¹⁾

이러한 사례는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동안 친척집에 거주하며, 또한 주택을 구입하는 데도 친척이나 친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밝히고 있다.¹²⁾

로버츠(Roberts)는 친구나 친척의 주변에 자리를 잡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절박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 9) T. G. McGee, “빈곤의 증세：동남아시아의 경우,” 이효재, 허석열(편),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서울: 한길사, 1984. p. 125.
- 10) Sarah C. Green, “Migrant Adjustment in Seoul, Korea: Employment and Housi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2(1), 1978. pp. 73-75.
- 11) B. Roberts, 「도시빈민과 도시생활에 대처 양상：라틴아메리카 도시의 경우」, 이효재, 허석열(편), 전개서, p. 160.
- 12) 박재규, “도시빈민지역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석사논문, 1985, pp. 48-63.

수 있기 때문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³⁾

티라스와트(Tiraswat)는 이입지에서 이입자의 주택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그의 교육수준, 수입, 주거기간, 연령 등이 있다. 이주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주자들은 보다 좋은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¹⁴⁾

그리고 이주자들이 이입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정신적 불안과 직업 및 기술의 습득, 주거지의 확보뿐만이 아니다.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이주자들은 가족원들 중에서 누가 병이라도 들거나 또는 경제적(금전적)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웃·친구 등과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무어(Moore)는 지적하고 있다.¹⁵⁾

2. 이주자의 적응 메카니즘

피엘딩(Fielding)은 이주과정을 <그림 2-2>에서와 같이 이주동기의 형성 → 이주의사 결정 → 이주실행까지의 단계와 이입지에서의 정착 및 적응이라는 두개의 단계로 나누면서, 특히 이주자가 이입지에서의 주거, 직업, 사회적 욕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환이동하거나 다른 곳으로 재이주할 수도 있으며, 만일 적응이 성공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주를 돋거나 자극하게 된다고 한다.¹⁶⁾ 이주자들은 이입지생활에

13) B. Roberts, 전계서, pp. 158-159.

14) P. Tiraswat, "Economic and Housing Adjustment of Migrants in greater Bangkok,"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2(1978), pp. 95-96.

15) J. M. Moore, "Mexican Americans and Cities: A Study in Migration and the Use of Informal Resourc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5, 1971. pp. 293-294.

16) Gordon J. Fielding,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4, pp. 214-216.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즉, 지식, 기술, 정보, 도시경험, 재산 등이 부족할수록 이주과정에서부터 이입지 정착생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이주과정에서의 노력과 이주후 정착과정에서의 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이주과정에서 적응노력

① 연결 이주

이주할 경우 이동비용에서부터 주거지 확보, 구직에 드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고향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이 생긴다. 이러한 비용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주자들은 연결이주(Chain-migration)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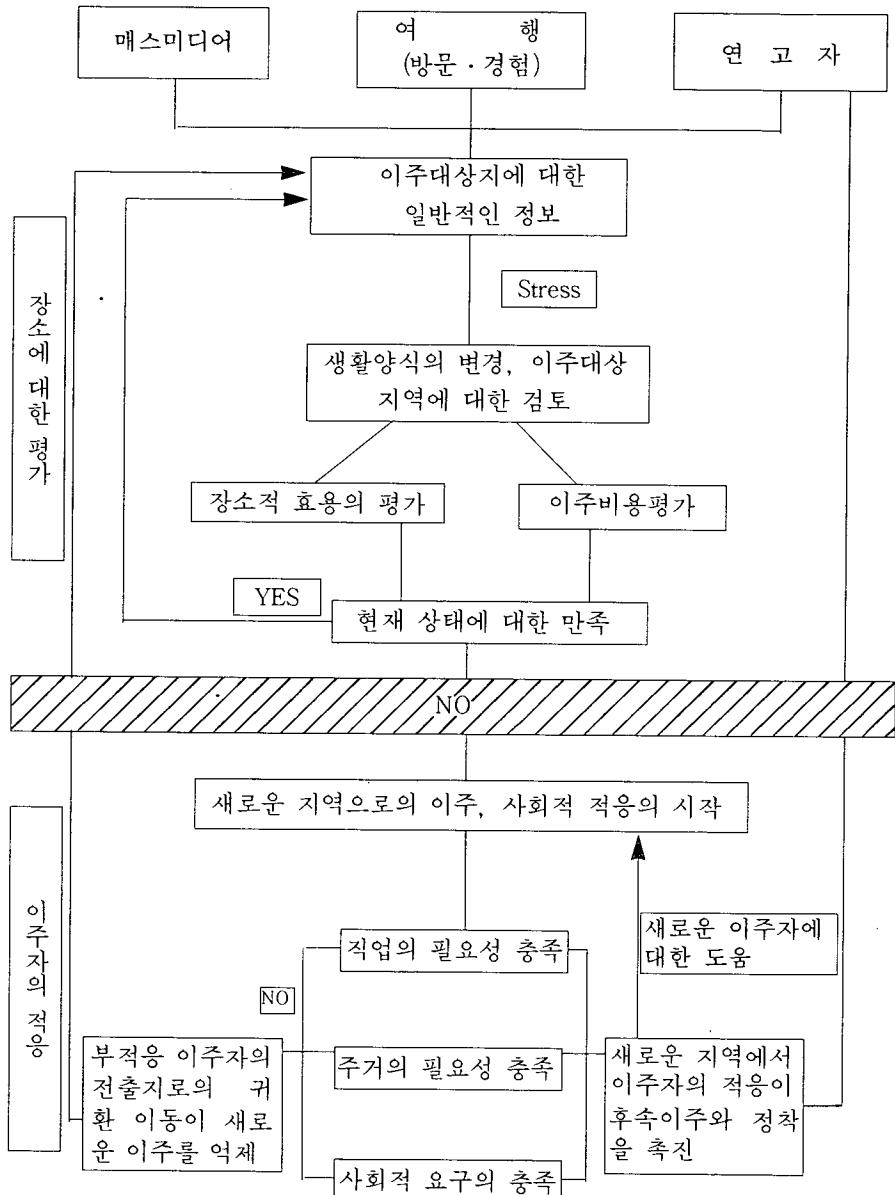
연결이주란 이주과정에서 이주자(또는 그의 가족)가 혼자서 이주를 결정하고 실행하기보다 이미 이입지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등 연고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그 지역의 정보 및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주하는 유형을 말하는 것¹⁸⁾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구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결이주를 함으로써 이주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이익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콜딘(Choldine)은 이러한 이익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물질적 도움(material assistances)이다. 이것은 이주자들이 이입지에 도착해서부터 독립생활을 하기까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을 포함하는데 그 내용은 주거지 제공, 일자리 알선, 생활필수품 제공, 응자 등이다. 둘째는, 매개적 도움으로 이주자로 하여금 관습, 지리, 새로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는 정보제공활동이 포함된다. 셋째는 사회적 접촉의 지원(Help in making new social connection)으로 이주자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17) C. Jansen, 전계서, p. 68.

18) N. B. Graves and T. D. Graves, 전계서, p. 123.

그림 2-2 인구이동의 2단계 과정



資料: Fielding (1974, p. 125).

조직에 가입을 도와 주는 활동을 말한다.¹⁹⁾

이러한 연결이주는 이주자들이 도시에 도착하여 직업 및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친척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데서도 기인되는 것이다. 틸리(Tilly)와 브라운(Brown)은 대도시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도시로 직접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주성향은 이주자의 자원부족과 도시경험의 부족 등에서 일어나는 긴장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적 및 정신적 지지 를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⁰⁾

이와 같이 이주자들은 이입지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들과 접촉을 가지며, 이입지에 들어간다. 로글러(Rogler)에 의하면, 뉴욕시로 이주한 푸에르트리칸인들 가운데 “도움체계(help-giving system)”를 가진 이주자들은 이주과정 및 초기 도시생활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성공적으로 극복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주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vulnerable)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¹⁾ 틸리(Tilly)와 브라운(Brown)은 이주자와 그가 이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성원들(대개 친척, 친구, 고향, 이웃 등) 간에 형성된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이주의 보호”(auspices of migration)란 개념을 사용하여, 이주자들이 이입지성원들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적응의 지표(indicators of adjustment) 사이에는 유용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19) H. M. Choldin, “Kinship Networks in the Migration Proc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7, 1973, pp. 168-169.

20) C. Tilly and C. H. Brown, “On Uprooting, Kinship, and the Auspices of 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8 (1967), pp. 139-146.

21) Rogler, L., “Help Patterns, the Family and Mental Health: Puerto Rican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2, 1978, pp. 248-259.

규명하고 있다.²²⁾

단독이주(independent migration)는 연결이주와 대립되는 이주유형으로 이주자가 이입하려는 지역에 친척, 이웃, 가족 등 연고자가 없거나 또는 있을지라도 그들과 접촉을 갖지 않은 채 이주자(혹은 그의 가족) 단독으로 이주하는 이주유형을 말한다. 그레이브스(Graves)에 따르면, 대체로 단독이주는 초기의 이주상황에서나 또는 이주자들이 고의로 아는 사람을 회피하고 혼자서 이주하려는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단독이주자들은 “전진하려는 욕구” “위험한 일을 수행하려는 의지” “자기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이성” 등의 성향이 강한 적극적 이주자들이긴 하지만²³⁾ 연결이주자들보다 초기 도시생활의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② 단계 이주

단계이주란 유사한 환경으로 이주할수록 이입지에서 이주자가 겪게 될 긴장(불안)이 그 만큼 적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출지보다 다소 규모가 큰 이입지로 점차 이주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주과정을 말한다.²⁴⁾ 이주자들은 처음부터 최종이입지를 염두에 두고 단계이주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이주자들은 이출지에서 하던 일이 호전되거나 부진하다고 느낄 때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이주한다.

이러한 반복된 이주로 보다 규모가 큰 이입지가 생소하게 느껴지지

22) C. Tilly and C. H. Brown, 전계서, p. 142.

23) N. B. Graves and T. D. Graves, 전계서, pp. 125~26.

R. C. Taylar, “Migration and Motivation: The Study of Determinants and Types,” in J. A. Jackson(ed.), *Migration*, London: Co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p. 127.

24) N. B. Graves and T. D. Graves, op cit., pp. 129~130.

B. M. Du Toit, “A Decision-Making Model for the Study of Migration,” in B. M. Du Toit and H. I. Safe(eds.), *Migration and Urbanization*, New York: Mouton Publishers, 1975, p. 51.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이입지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초기 도시생활에서 오는 긴장을 잘 극복할 수도 있다.²⁵⁾

이러한 단계이주를 하는 일반적 이유로는 ①이주가 편리한 인접지역으로 이주하는 성향, ②대도시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③대도시에 친척, 친구, 이웃 등 연고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단계이주와 대립되는 현상으로 도약이주가 있다. 이러한 이주과정은 이주자가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단계이주보다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 정착과정에서 적응 노력

이주자들은 이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주 후 이입지에서의 정착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적응노력을 한다. 이러한 적응노력에는 거주지역의 선택, 다양한 소득원천의 추구, 소비욕구의 축소, 비공식조직에의 참여 등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과 유지, 도시생활에 실패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재이동 또는 귀환이동이 포함된다.

① 주거 확보

이주자의 주거확보 및 주거이동은 직업이동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도시생활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주자들의 거주지역의 선택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주자들은 도시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수록 생활비의 절약을 위하여 빈민지역을 주거지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터너(Turner)에 의하면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농민이 도시에 정착하기까지는 생활거점확보단계(bridge heads), 기

25) R. Cardona and A. Simmons., "Toward a Model of Migration in Latin America," in B. M. Du Toit and H. I. Safa(eds.), *Migration and Urbanization*, New York: Mouton Publisher, 1975, p. 24.

반구축(consolidator)의 단계를 거쳐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단계(middle income status seeker)에 이른다고 한다.²⁶⁾

생활거점확보단계에서는 최근에 도시로 이주한 무기술, 저소득의 이주민들에게 있어 주택은 참여거점으로서의 기능이 중시된다. 따라서 이들을 비숙련직업이나 부정기적 일자리에 접근이 용이한 도심의 불량주택구역에 주거지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 기반구축단계에서는, 이주자들은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라도 합법적인 주택을 소유하려 한다.

사회적 지위향상단계에서는 주택은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확보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 주택의 물리적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임희섭은 우리 나라 영세농출신 도시빈곤층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정을 생계문제와 주거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처음 도시에 이주한 단계에서는 판자집, 무허가주택, 월세 등 주거비용을 최소로 하는 일시적 주거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이후 단순노동이나 노점, 행상과 같은 불안정하고 영세한 생업으로 일시적 생계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세번째 영구적 생계문제해결의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을 자영하거나 가구주 또는 자녀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영구적 생업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영구적 주택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된다.²⁷⁾

② 소득원 다양화

살리(Salih)는 도시노동시장에서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학력이 낮아 고용기회에 접근이 어려운 이농민의

26) V. F. Costello, *Urbanization in Middle Ea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 50.

27) 임희섭,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문제,” 「한국사회개발연구」, 홍승직 외(편),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9, pp. 76-77.

대부분으로 충원되는 것으로 보았다.²⁸⁾ 이와 같이 이주민의 많은 사람들은 도시경제의 비공식 부분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업과 수입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들은 맥기(McGee)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구원들 중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약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다가구원 취업활동을 통한 소득극대화방안에 의해 가구소득을 보전하고 있다.²⁹⁾

브롬리(Bromley)와 게리(Gerry)는 이들의 일을 임시노동(Casual work)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직업과 빈곤상황을 연결시키고 있다. 임시노동이란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결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방식의 노동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한 소득기회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피고용 또는 자영업,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행위,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 활동 등 많은 유형의 노동을 포함한다.³⁰⁾ 이와 같은 이주민들의 소득극대화방안은 노동력 질 향상을 위한 자녀교육을 제한시켜 세대간 계층상승을 저해함으로써 이들 이주빈곤층의 구조적 재생산을 순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토다로(Todaro)는 농촌 노동력이 도시의 비공식부문에 먼저 이동하고 그곳에서 도시체계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근대적인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포착하여 공식부문에 취업할 수 있으며,³¹⁾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으로의 진입을 기다리는 일시적인 유계지(holding ground)이며, 이농인구는 여기서 낮은 비용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됨으로써 소득창출과 직업탐색, 기술습득을 동시에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다.³²⁾

-
- 28) Kamal Salih, "Man and work in the Informal Sector," Paper Presented to 1981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Relations, 1981, p.3.
 - 29) T. G. McGee, "빈곤의 증세: 동남아시아 도시의 경우," 이효재, 허석 열(편),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1983, p. 123.
 - 30) R. Bromley and C. Gerry, *Casual Work and Poverty in Third World Citi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9, p. 5.
 - 31) Michael P. Todaro,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No. 2, 1969, pp. 138-148
 - 32) Michel P. Todaro, "Comment," *Regional Development Dialogue*, Vol. 5 No. 2, 1984, pp. 49-54.

③ 소비욕구 축소

이주민들이 도시이농빈곤층을 형성할 때 주거비, 음식료비, 의료비 절감을 통한 소비극소화 생활방안을 유지한다.

맥기 (McGee) 연구에 의하면 빈민들은 그들의 저소득수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매량을 줄이고, 소비욕구를 축소시키며, 낮은 영양수준과 빈약한 보건상황을 극복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박영숙은 도시빈민들은 기준이하의 주거환경과 부적절한 설비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교통비, 오락비 심지어 교육비 등을 줄여 가면서 각종 저축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았다.³³⁾ 또한 베리 (Berry)에 따르면 근대적이며, 규모가 큰 식료품점이 빈민지역에는 희소하며, 지역주민들은 음식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역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하며, 더욱이 그러한 기회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소비욕구를 축소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³⁴⁾

④ 사회적 연결망

이농민의 사회적 연결망은 주로 비공식적, 대인적 성격을 띠며, 이러한 연결망은 동족, 친척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이웃, 동창, 동향사람들간에 형성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연결망은 인구이동을 촉진하고 방향지워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영구적 주거확보, 취업기회포착, 기술습득 고용과정 등에 작용하며, 사회적·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쇼버그 (Sjoberg)에 따르면 이주자들은 그의 이주를 도와 준 매개자들과 더불어 비공식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이주자들은 이들로부터 도시의 생활방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 구직에 관한 지식을 제공받으며, 학교나

33) T. G. McGee, op. cit, pp. 127-312.

34) 박영숙, “도심지 빈민의 경제적 적응 방식에 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 논문, 1983. p. 19 재인용.

노조와 같은 공식조직에의 접근에 도움을 받는다.³⁵⁾ 무어(Moore)는 미국에 이주한 멕시코인 연구에서 친척이나 친구 등의 재정적 도움은 도시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래 거주할수록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믿을만한 비공식 조직을 발전시켜 놓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³⁶⁾

우젤(Uzzel)의 리마시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빈민지역주민들 간에 비공식조직이 발달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³⁷⁾

이상에서 이주행태, 이입지에서의 적응문제 및 그들 문제해결을 위한 적응노력과 그 매카니즘에 관한 기존문헌을 검토하였다. 이입지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적응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여러 가지 자원동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동원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응방법을 채택하면서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주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연결이주를 하거나 단계이주방식을 주로 택한다.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 초기에는 거주지역을 도시주변부나 도시내 불량지구에 정하고 다가구원 취업을 통한 소득극대화와 소비욕구의 축소에 의한 소비극소화를 생계유지방식으로 하며 비공식조직에도 참여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적응노력을 통하여 정착에 필요한 자원동원을 하면서 이입지생활에 적응하려고 한다.

35) G. Sjoberg, "Cities in Developing and in Industrial Societies: A Cross-Cultural Analysis," in Philip M. Hauser & Leo F. Schnore (eds.), *The Study of Urbanization*, New York:John Wiley and Sons, Inc., 1969, p. 226.

36) J. M. Moore, "Mexican Americans and Cities:A Study in Migration and the Case of Informal Resourc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5(1971), pp. 293-294.

37) N. B. Graves and T. D. Graves, op. cit, p. 33 재인용.

제 3 장

재촌가구의 이농 가능성과 이농 저해요인

1.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이주자들이 이입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착과정에서 당면하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거나 극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당면문제의 해결은 이입자의 연령, 교육수준, 종사직업, 경제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재촌가구의 이입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응력 수준을 그들의 일반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명해 보기로 한다.

우선 조사대상 가구주의 성별·연령별 구성은 <표 3-1>에서와 같다. 즉, 남자 가구주가 전체의 85.0%로 나타났고, 연령별 구성에서는 30대 이하가 9.5%인데 비하여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주 비율은 42.0%나 되었다. 가구주 고령화현상은, 특히 여성 가구주가 현저하여 63.3% (남성 가구주는 38.2%)나 되었다.

이와 같이 연령만을 고려할 때 재촌가구주 중에는 이농시 구직 및 취업활동을 위한 경제적 적응력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많아 이들의

이 농을 유도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력수준별 가구주 구성을 보면 〈표 3-2〉와 같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졸(46.5%) 및 무학(31.5%)인 가구주가 78.0%나 되었고,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 비율은 불과 9.0%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저학력 소지자는 여성 가구주에서 현저하게 나타나 여성 가구주 중 76.7%는 무학, 23.3%는 국졸의 학력 소지자이었다.

따라서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 재촌가구주의 이입지에서의 직업선택에 대한 적응력의 수준도 매우 낮아 이들에 대한 이농유도 및 그 가능성 또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직업별 구성은 〈표 3-3〉과 같이 농업이 69.0%인데 비하여 겸업과 비농업종사 비율은 각각 9.0%와 8.5%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로 보면 비농업종사자 비율은 여성 가구주(13.3%)가 남성 가구주(7.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촌 가구주 중 이주시 직업전환에 의한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촌가구주의 농지소유 및 이용상황은 〈표 3-4〉에서와 같다. 소유상황을 보면 22.0%가 전혀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무농지 가구이고, 1,500평미만 농지 소유가구도 34.0%나 되는데 비하여 4,500평 이상 농

표 3-1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구성

단위: 명, %

성 별	연 령 별						계
	~29세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남 자	1 (0.6)	18 (10.6)	31 (18.2)	55 (32.4)	40 (23.5)	25 (14.7)	170 (100.0)
여 자	0	0	1 (3.3)	10 (33.3)	12 (40.0)	7 (23.3)	30 (100.0)
계	1 (0.5)	18 (9.0)	32 (16.0)	65 (32.5)	52 (26.0)	32 (16.0)	200 (100.0)

지소유 가구는 7.5%에 불과하였다.

임대관계를 보면 농지소유 가구 156호 중에서 26호(농가의 16.7%) 만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6호는 3,000평 이상을, 18 호는 1,500평 미만을 임대하고 있었다.

임차관계에 있어서는 200가구 중에서 46.0%(92호)가 임차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규모별로 보면 1,500평 미만의 임차지를 경작하는 가구비율이 26.5%로 가장 높았으나, 3,000평 이상을 임차경작하는 가구도 7.5%(15호)나 되었다.

경작관계는 농사를 전혀 짓지않는 가구비율이 19.0%나 되어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 중 6호가 임차경작을 통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 경작규모별로 보면 1,500평 미만을 경작하는 비율이 23.0%인데 비하여 4,5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비율은 15.0%나 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토지소유에 기초한 재촌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낮아 재촌가구 중 50% 정도가 도시로 이농시 정상적인 주

표 3-2 가구주의 학력별 구성

단위: 명, %

성 별	학 력					계
	무 학	국 졸(퇴)	중 졸(퇴)	고 졸(퇴)	대출(퇴)이상	
남 자	40(23.5)	86(50.6)	26(15.3)	15(8.8)	3(1.8)	170(100.0)
여 자	23(76.7)	7(23.3)	0	0	0	30(100.0)
계	63(31.5)	93(46.5)	26(13.0)	15(7.5)	3(1.5)	200(100.0)

표 3-3 가구주의 직업별 구성

단위: 명, %

성 별	직 업				계
	농 업	농업+비농업	비 농업	무 직	
남 자	126(74.0)	18(10.6)	13(7.7)	13(7.7)	170(100.0)
여 자	12(40.0)		4(13.3)	14(46.7)	30(100.0)
계	138(69.0)	18(9.0)	17(8.5)	27(13.5)	200(100.0)

택에 전세살이도 벅찬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지에서 주거문제 해결은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거가구원 규모가 주거의 물리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재촌가구들이 이농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동거가구원 규모는 중요요인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거가구원 규모가 작을수록 주거문제 해결은 용이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재촌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적응력을 동거가구원 규모에 초점을 맞춰보면 <표 3-5>에서와 같이 50% 정도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거가구원 규모가 5인 이상으로 주

표 3-4 농지소유·이용규모별 가구분포

단위: 호, %

경지규모	농 지 소 유 · 이 용 규 모			
	소 유 면 적	임 대 면 적	임 차 면 적	경 작 면 적
0	44 (22.0)	174 (87.0)	108 (54.0)	38 (19.0)
1,500평 미만	68 (34.0)	18 (9.0)	53 (26.5)	46 (23.0)
1,500~3,000	47 (23.5)	2 (1.0)	24 (12.0)	60 (30.0)
3,000~4,500	26 (13.0)	4 (2.0)	7 (3.5)	26 (13.0)
4,500~6,000	8 (4.0)	2 (1.0)	4 (2.0)	15 (7.5)
6,000평 이상	7 (3.5)	0 (-)	4 (2.0)	15 (7.5)
계	200(100.0)	200(100.0)	200(100.0)	200(100.0)

표 3-5 동거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단위: 호, %

계	동 거 가 구 원 수							호당동거 가구원수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200 (100.0)	14 (7.0)	68 (34.0)	24 (12.0)	43 (21.5)	26 (13.0)	21 (10.5)	4 (2.0)	3.39

거문제 해결에 적응력이 취약한 가구 비율은 25.5%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재촌가구 중에서 이주지에서 새로운 직업 및 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주거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응력을 소유한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촌가구의 자발적 이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응력 강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이주자녀와 연결이주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촌가구주의 이농을 위한 잠재력과 적응력은 매우 미약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전가족 이농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재촌가구의 이농유도방법의 하나로 이촌 자녀를 연결고리로 한 가족결합을 통한 연결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주가능성을 부분가족이주자 및 기혼별거 이주자들과 관련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부분 이주 자녀와 연결이주 가능성

조사가구의 부분가족이주자는 총 245명(남자 146명, 여자 99명)으로 호당평균 1.23명이었다. 가구주와의 관계별로 보면 <표 3-6>에서와 같이 92.2%가 자녀이었고, 이 중 장남은 20.0%이었다.

이들 이주가구원의 학력수준별 분포는 <표 3-7>에서처럼 고등학교 수준이 전체의 51.8%로 가장 많았고, 대학 수준의 학력소지자도 19.6%나 되었다. 성별로 본 학력 수준은 대학 수준에 있어서는 남자(25.0%)가 여자(11.9%)보다 2배 정도 높은데 비하여 국민학교 수준의 학력소지자는 여자(15.8%)가 남자(8.3%)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이와 같은 자녀간의 학력격차는 아들이 연결이주의 역할담당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분가족이주자의 성별 이주이유는 <표 3-8>에서 처럼 87.6%가 취업(62.0%)과 취학(25.6%)을 위해 이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주 이유를 성별로 보면 여자 이주자 중에는 75.3%가 취업을 위해 이주하고 있으나 남자이주자 중에는 취업을 위한 이주자는 53.1%로 약간 낮게 나타난 반면 취학과 입영을 위한 이주자 비율도 29.0%와 13.8%나 되었다. 부분가족이주자의 이주지역은 <표 3-9>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울(34.4%)을 비롯한 도시가 82.4%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12.8%밖에 되지 않았다. 이주이유별 이주지역을 보면 취업과 취학을 위한 이주자 중 89.3%와 70.0%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학을 위한 이주자들의 도시집중 현상은 학업을 마친 후에도 도시에 그대로 정착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연결이주의 고리로서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도

표 3-6 가구주와 관계별 부분 가족이주자

단위: 명, %

성 별	가 구 주 와 관 계						계
	처	장 남	차남이하 자녀	부 모	형 제	손 자	
남	0	49(33.6)	89(61.0)	1(0.7)	5(3.4)	2(1.4)	146(100.0)
여	3(3.0)	0	88(88.9)	3(3.0)	5(5.1)	0	99(100.0)
계	3(1.2)	49(20.0)	177(72.2)	4(1.6)	10(4.1)	2(0.8)	245(100.0)

표 3-7 부분 가족이주자의 성별 학력별 구성

단위: 명, %

성 별	학 력					계
	무 학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남	3(2.1)	12(8.3)	22(15.3)	71(49.3)	36(25.0)	144(100.0)
여	3(3.0)	16(15.8)	14(13.9)	56(55.5)	12(11.9)	101(100.0)
계	6(2.5)	28(11.4)	36(14.7)	127(51.8)	48(19.6)	245(100.0)

시에서의 주거문제 해결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부분가족이주자의 현재직업은 <표 3-10>에서와 같이 54.8%가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전문관리직(5.3%)과 사무직(1.8%) 등 안정적 직업에 종사자는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을 기준으로 볼 때 부분가족이주자 중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주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부분 가족이주자의 상당수가 취업을 위한 이주자이고, 이들 중에서도 안정된 직업종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부분 가족이주자를 고리로 한

표 3-8 부분 가족이주자의 성별 이주 이유

단위: 명, %

성별	이 주 이 유					계
	취업	취학	임영	기술취득	기타	
남	77(53.1)	42(29.0)	20(13.8)	2(1.4)	4(2.8)	145(100.0)
여	73(75.3)	20(20.6)	0	0	4(4.1)	97(100.0)
계	150(62.0)	62(25.6)	20(8.3)	2(0.8)	8(3.3)	242*(100.0)

* 무응답자 3명 제외.

표 3-9 부분 가족이주자의 이주 이유별 이주 지역

단위: 명, %

이주지역	이 주 이 유					계
	취업	취학	임영	기술취득	기타	
도시	133(89.3)	42(70.0)	6(66.7)	1(50.0)	5(71.4)	187(82.4)
서울	62(41.6)	10(16.7)	1(11.1)	1(50.0)	4(57.1)	78(34.4)
기타도시	71(47.7)	32(53.3)	5(55.6)	0	1(14.3)	109(48.0)
농촌	10(6.7)	17(28.3)	0	1(50.0)	1(14.3)	29(12.8)
기타	6(4.0)	1(1.7)	3(33.3)		1(14.3)	11(4.8)
계	149(100.0)	60(100.0)	9(100.0)	2(100.0)	7(100.0)	227*(100.0)

* 입영자 등 무응답자 18명 제외.

재촌가구주의 연결이주의 실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나. 기혼별거 아들과 연결이주 가능성

조사대상가구에서 기혼별거 이주하고 있는 아들은 <표 3-11>에서와 같이 총 176명(호당 0.88명)이었고, 이 중 장남은 48.9%인 83명이었다. 연령계층별로는 30~39세층이 전체의 59.6%이었고, 이 중 장남이 26.1% (46명)이었다.

이들 기혼별거 아들의 학력수준별 분포는 <표 3-12>에서 처럼 국졸자가 31.3%로 가장 많았으나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도 54.0% (대졸은 23.3%)나 되었다.

이주시기별 분포를 보면 1981년 이후에 이주한 자가 전체의 42.8%,

표 3-10 부분 가족이주자의 학력별 현재 직업

단위: 명, %

직업범주	학 력 수 준 별					계
	무 학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전문관리직			1	5	6	12(5.3)
사 무 직		1		2	1	4(1.8)
노 동 직 (사무노동자)	2	15 2	14 13	76 49	18 14	125(54.8) 78 (34.2)
(판매노동자) (서비스노동자)		2	1		3 1	3 (1.3) 4 (1.8)
(산업노동자)	2	11		27		40 (17.5)
자 영 업		1	1	3	2	7(3.1)
무 직	3	5	3	2	1	14(6.1)
기 타 (학생)	0	6 4	14 13	25 19	21 16	66(28.9) 52(22.8)
(군 인)				6	5	11 (4.8)
(기 타)		2	1			3 (1.3)
계	5	28	33	113	49	228(100.0)

1971년에서 1980년 사이에 이주한 아들의 비율은 42.1%나 되어 1971년 이후 이주한 비율도 84.9%나 되었다 (표 3-13).

또한 기혼별거 이주아들의 이주이유는 (표 3-14)에서와 같이 취업 때문에 이주하게 된 비율이 79.6%나 되었고, 취학을 위해 이주했다가 그대로 별거하게 된 아들의 비율은 16.7%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기혼별거 이주아들의 현재직업과 주택소유관계는 (표 3-15)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즉, 56.7%가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고, 25.6%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전문관리직(3.0%) 및 사무직(3.0%) 등 안정

표 3-11 연령별 기혼별거 아들 수

단위: 명, %

출생서열	연령계 총별				계
	~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장남	6 (24.0)	46 (43.8)	27 (71.1)	7 (87.5)	86 (48.9)
차남이하	19 (76.0)	59 (56.2)	11 (28.9)	1 (12.5)	90 (51.1)
계	25 (100.0)	105 (100.0)	38 (100.0)	8 (100.0)	176 (100.0)

표 3-12 학력별 기혼별거 아들 수

단위: 명, %

국졸	중졸	고졸	대졸	계
55 (31.3)	26 (14.8)	54 (30.7)	41 (23.3)	176 (100.0)

표 3-13 출타 시기별 기혼별거 아들 수

단위: 명, %

출타시기						계
~1960년	1961~1965	1966~1970	1971~1975	1976~1980	1981~	
9 (6.5)	4 (2.9)	9 (6.5)	21 (15.2)	36 (26.9)	59 (42.8)	138* (100.0)

* 무응답(미상)자 38명 제외.

적 직업에의 종사자 비율은 6.0%에 지나지 않았다. 주택소유형태로 보면 자기집 소유자는 3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과

표 3-14 출타 이유별 기혼별거 아들 수

단위: 명, %

출 타 이 유 별					계
취 업	취 학	입 대	기 타	무 응답	
129 (79.6)	27 (16.7)	3 (1.9)	3 (1.9)		162* (100.0)

* 무응답자 14명 제외.

표 3-15 기혼별거 아들의 직업별 주택 소유형태

단위: 명, %

직업별 주	주 택 소 유 형 태				계
	자 가	전 세	삯월세	기 타	
전문관리직	2			3	5 (3.0)
사무직	2	3			5 (3.0)
노동직	37	49	9	4	99 (56.7)
사무노동자	26	37	5	3	71
서비스노동자	6	3	1	1	11
산업노동자	5	9	3		17
자영업	14	20	7	1	42 (25.6)
자영상인	6	4	1		11
자영생산	6	12	3		21
농업	2	4	3	1	10
무직	1		3		4 (2.4)
기타	3	2	4		9 (5.5)
계	59 (36.0)	74 (45.1)	23 (14.0)	8 (4.9)	164* (100.0)

* 무응답자 12명 제외.

주거소유형태만을 고려할 때 기혼별거 이주아들 중에서 30% 정도만이 이입지에서의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장남의 부모부양관행, 부자간 고부간의 갈등, 도시생활의 무경험에서 오는 두려움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배제한 채 기혼별거 이주아들의 이입지에서의 적응 상태만을 고려할 때 재촌가구주의 약 30%는 기혼별거 이주아들을 연결고리로 한 연결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재촌가구의 이농 가능성과 이주가능 경로별 문제점

이농이 가구(개인) 단위의 발전전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재촌가구의 이입지에서의 적응력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이농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촌가구의 이농의사를 바탕으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이농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재촌가구의 이농가능유형별 이농가능성과 이농가능경로별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농 가능 유형과 배경의 특성

재촌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농방법의 유형은 크게 1) 이촌자녀를 연결고리로 한 가족결합의 연결이주형 2) 가구주가 도시적응력이 있어 스스로 이농이 가능한 독단적 이주형 및 3) 적응력과 이농의사가 없는 이주 불가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①의 이주형 즉, 자녀와의 연결이주형도 이촌자녀의 현재 도시적응 수준에 따라서 ① 도시거주아들의 적응수준이 높아 언제든지 아들네로 이주할 수 있는 완전결합 이주 가능형, ② 도시거주아들의 적응수준은 아직 낮으나 적응하면 갈 수 있는 불완전결합 이주가능형, ③이촌한 아들이 없지만 재촌하고 있는 아들을 이농시킨 후 적응하면 갈 수 있는 잠재적 결합 이주가능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주 가능 유형별 재촌가구의 이농 가능성에 대한 분포는 〈표 3-16〉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대상가구 186호 중에서 이농의 가능성 을 보이고 있는 가구비율은 31.7%에 지나지 않았고, 69.3%는 이농의 사도 없고 도시에서의 적응력에 자신이 없어 이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1.7%에 해당하는 이주가능성이 있는 가구 중에서도 도시 정착한 아들과 가족결합을 통한 이주가능성이 확실시되는 가구비율은 10.2%에 불과하고, 9.1%는 독자적인 이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재 촌가구 중에서 무리없이 이농을 유도할 수 있는 가구는 20% 내외에 불 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다음은 이주가능 유형별 재촌가구의 배경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3-17〉은 이주가능유형별 가구주의 사회적 배경의 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도시자녀와의 연결이주가 가능한 가구군에서는 여성가구주(23.8%), 60세 이상 고령 가구주(54.8%), 국졸 이하의 저 학력 가구주(90.5%)의 구성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 한 배경적 특성은 완전 결합형 이주가능 가구에서 현저하여 여성가구주 와 60세 이상 고령가구주 비율이 각각 36.8%와 73.7%이었고, 모든 가 구주가 국졸 이하의 저학력소지자로 밝혀졌다. 그러나 60세 이하(82.

표 3-16 재촌 가구의 이주 가능 유형별 분포

단위: 호, %

선택적 이주 가능유형	가 구 수	%
도시가족 결합형 이주가능	42	(22.6)
완전 결합형 이주	19	(10.2)
불완전 결합형 이주	16	(8.6)
잠재적 결합형 이주	7	(3.8)
독단적 이주가능	17	(9.1)
이 주 불 가	127	(69.3)
계	186*	(100.0)

* 무응답자 14명 제외.

4%), 비농업종사자(23.5%), 국출 이상 학력소지자(58.8%) 및 도시거주유경험자(42.9%)의 비율은 독단적 이주가능 가구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비교적 젊고, 직업전환에 대한 잠재력과 도시생활의 경험을 통한 도시적응에의 자신감이 있는 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주가능 유형별 농지소유 및 이용을 중심으로 경제적 배경의 특성을 보면 <표 3-18>에서와 같다. 즉, 도시자녀와 연결이주가 가능한 가구군에서도 자기땅을 갖지 못한 가구가 23.8%(10호), 자기농지를 임대하는 가구가 9.5%(4호), 임차경작을 하는 가구가 45.2%(19호)로 나타나 결국 28호(66.7%)가 자기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38호(81.0%)가 농사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단적 이주가능 가구(17호) 중에는 농지비소유 가구가 4호(23.5%), 농지임대 가구가 2호(11.2%), 임차경작 가구가 6호(35.3%)로, 13호(76.5%)가 영농활동을 하고 있었다.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에 있어서는 불완전결합형 이주가능유형의 가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여타유형과 현격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촌농가의 이농시 농지유동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표 3-19>와

표 3-17 이주 가능 유형별 사회적 배경

이주가능 유형	가구주의 사회적 배경				
	여성가구주 비율	60세이상 가구주비율	국 출 이 하 가구주비율	비농업종사 가구주비율	유도시경험 가구주비율
도시가족 결합형 이주가능(42)	23.8	54.8	90.5	7.1	19.0
완전 결합형 이주가능(19)	36.8	73.7	100.0	5.3	15.8
불완전 결합형 이주가능(16)	12.5	50.0	87.5	6.3	25.0
잠재적 결합형 이주가능(7)	14.3	14.3	71.4	14.3	14.3
독단적 이주가능(17)	11.8	17.6	41.2	23.5	42.9
이주불가능 (127)	11.0	41.7	80.3	7.9	31.7
계(평균)	13.9	42.5	79.0	9.1	29.6

같다. 이농의 가능성이 있는 59호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49호(83.1%)이었다. 이 중 8호(16.3%)가 모든 농지를, 1호(2.0%)는 일부만 처분하겠다고 함으로써 이농에 의한 농지소유권의 이동에 대한 기대는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가구가 14호(28.6%)이었고, 나머지 26호(53.1%)는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농을 통한 농지유동화는 소유권이전보다는 경영권 이양쪽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향은 농지가격의 상승전망, 농촌주민의 토지에 대한 강한 애착심, 또는 이농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 대비한 생계보장수단의 확보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수긍이 가는 반응으로 보인다.

표 3-18 이주 가능 유형별 농지소유와 이용

단위: 평, %

이주가능 유형	농지소유 및 이용							
	농지소유		농지임대		농지임차		경작	
	무소유 가구율	호당평균 면적	무임대 가구율	호당평균 면적	무임차 가구율	호당평균 면적	무경작 가구율	호당평균 면적*
도시가족결합형	23.8	1,751	90.5	162	54.8	681	19.0	2,300
이주 가능(42)		(2,298)		(1,700)		(1,031)		(2,842)
완전결합형	26.3	1,530	89.5	226	68.4	545	31.6	1,849
이주 가능(19)		(2,077)		(2,150)		(1,726)		(2,703)
불완전결합형	18.8	2,137	87.5	156	62.5	627	12.5	2,685
이주 가능(16)		(2,630)		(1,250)		(1,672)		(3,069)
잠재적결합형	28.6	1,468	100.0	0	0.0	1,175	0.0	2,636
이주 가능(7)		(2,055)				(1,175)		(2,636)
독단적	23.5	1,572	88.2	324	64.7	985	23.5	2,623
이주가능(17)		(2,057)		(2,750)		(2,792)		(3,430)
이주불가능(127)	21.3	1,709	87.4	198	52.0	690	15.7	2,330
		(2,172)		(1,570)		(1,436)		(2,766)
계(평균)	22.0	1,706	83.7	201	53.8	715	17.2	2,350
		(2,189)		(1,701)		(1,546)		(2,839)

* ()안은 농가 호당 면적임.

나. 이주 가능 유형별 이주경로와 문제점

① 완전 가족결합 이주형

도시에 정착하고 있는 아들과의 연결이주가 가능한 가구들의 이주대상아들과 이주시기에 대한 응답내용은 <표 3-20>과 같다. 즉, 대상가구 19호 중에서 장남에게 가겠다는 가구주는 10명 (52.6%)이었고, 5년 이내에 가겠다는 가구주는 단지 2명 (10.5%)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연결이주를 할 수 있는 도시거주아들이 있는 데도 곧바로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 <표 3-21>이다. 이

표 3-19 이주 가능 유형별 농지 처분방법

이주 가능 유형	농지 처분 방법				단위: 호, %
	모두 처분	일부만처분	모두 소유	미 정	
완전 결합형 이주가능가구	2(14.3)		3(21.4)	9(64.3)	14(100.0)
불완전 결합형 이주가능가구	2(14.3)		4(28.6)	8(57.1)	14(100.0)
잠재적 결합형 이주가능가구	1(20.0)		1(20.0)	3(60.0)	5(100.0)
독단적 이주가능가구	3(18.8)	1(6.3)	6(37.5)	6(37.5)	16(100.0)
계	8(16.3)	1(2.0)	14(28.6)	26(53.1)	49*(100.0)

* 농지없는 가구 10호 제외.

표 3-20 완전 가족결합 이주형의 이주 대상 아들과 이주시기

결합 대상 아들		이 주 시 기			단위: 명, %
장 남	차남이하	5년이내	5년이후	미 정	
10 (52.6)	9 (47.4)	2 (10.5)	9 (47.4)	8 (42.1)	19 (100.0)

를 보면 도시생활의 답답함과 외로움, 아직은 활동능력이 있어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이 각각 6명 (31.6%) 쪽으로 나타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식눈치 보기 쉽고 농촌생활의 편리함(3명, 15.8%)과 봉양해야 할 부모와 미혼자녀가 있기 때문도 이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응답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노령가구주의 자녀와의 연결이주에 있어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려는 욕구, 전원적인 농촌생활환경과 판이한 도시생활에 대한 적응의 두려움,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 따른 고립감, 자식들의 대접소홀의 우려감 등 사회심리적 요인이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② 불완전 가족결합 이주형

이 유형에 속하는 이주 자녀들이 아직 도시 정착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6명 (37.5%)이 자녀의 저교육 · 무기술을, 4명 (25.0%)이 수입이 적음을, 그리고 3명 (18.8%)이 재산상속을 해 주지 못하여 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이들 자녀가 도시정착에 필요한 것은 <표

표 3-21 완전 가족결합 이주형의 이주 저해요인

단위: 명, %

이 주 저 해 요 인						계
도시생활의 답답함과 외로움	자식눈치 보기 쉽고 농촌생활이 편해	아직 활동능력 있어 농사 능	부모봉양 및 미혼자녀가 있어 려워	재산처분이 어려워	기타	
6 (31.6)	3 (15.8)	6 (31.6)	2 (10.5)	1 (5.3)	1 (5.3)	19 (100.0)

표 3-22 이주 자녀의 도시 미정착 이유

단위: 명, %

저 학 력 무 기 술	수 입 적 어	재 산 상 속 이 없 어 서	사 업 실 패	투 병 중	기 타	계
6 (37.5)	4 (25.0)	3 (18.8)	1 (6.3)	1 (6.3)	1 (6.3)	16 (100.0)

3-23〉, 내집 마련이 7명 (43.8%), 안정된 직업확보가 4명 (25.0%),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생활 영위가 3명 (18.8%)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도시정착을 위한 소요기간은 〈표 3-24〉에서와 같이 5년 이내가 1명, 5~10년이 1명, 나머지 14명 (87.4%)은 기약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③ 잠재적 가족결합 이주형

이 이주유형에 해당하는 재촌가구주(7명)의 이농대상자녀의 희망이 주지역과 희망직업에 대한 응답내용은 〈표 3-25〉와 같았다. 즉, 희망 이주지역으로는 4명이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선호하였고, 희망직업으로는 전문직 종사, 자동차정비기술자, 장사, 건축일 등 구체적인 직종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3명은 아무일이나 상관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3-23 이주 자녀의 도시 정착을 위한 해결(지원) 내용

단위: 명, %

주택 마련	안정된직업	결 혼	사업자금지원	완 치	계
7 (43.8)	4 (25.0)	3 (18.8)	1 (6.3)	1 (6.3)	16 (100.0)

표 3-24 이주 자녀의 도시 정착 소요기간

단위: 명, %

5년 이내	5~10년 이내	기 약 없 음	계
1 (6.3)	1 (6.3)	14 (87.4)	16 (100.0)

표 2-25 자녀의 이주 희망지역과 희망직업(종)

단위: 명

이주희망지역	희 망 지 역 (종)					계
	전 문 직	건 축 일	자동차정비공	장 사	아무일이나	
서울 등 도시		1	1	1	2	5
전국 어디나	1				1	2
계	1	1	1	1	3	7

④ 독단적 이주형

독단적 이주가 가능한 가구의 이주계기에 대한 응답내용은 <표 3-26>과 같이 12명(70.6%)이 여건이 준비되는 대로라고 막연한 의사를 표시한 반면에 농지 및 주택이 매각되는 대로, 또는 아들이 대학진학 하면이라고 구체적인 이주계기를 표명한 가구는 4호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의 이주 희망지역은 군내·농촌은 2명이 지나지 않았고, 15명이 서울(8명)을 위시한 도시를 선호하고 있었다<표 3-27>.

희망직업(종)을 보면 <표 3-28>에서처럼 상업과 사무직 종사가 각각 4명과 3명이었고, 6명은 공장공원, 건축노동자 등 비공식부문의 불안정한 직종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주가능유형별 이주경로 및 형태에 관한 분석내용을 통해 볼 때 재촌가구의 이농을 유도시키고 나아가 이농을 개인의 발전전략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고령의 재촌가구주들의 도시자녀와의 연결이주를 촉진함에 있어서는 이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도시에서의 원만한

표 3-26 독단적 이주 가능형의 이주 계기

단위: 호, %

농지 및 주택 매각 되면	농사 능력 없으 면	아들 대학 진학 하면	여건이 준비 되면	계
3 (17.6)	1 (5.9)	1 (5.9)	12 (70.6)	17 (100.0)

표 3-27 독단적 이주 가능형의 이주 희망지역

단위: 호, %

군 내	인근 도시	타 도 도시	서 울	계
2 (11.8)	5 (29.4)	2 (11.8)	8 (47.0)	17 (100.0)

표 2-28 독단적 이주 가능형의 희망직업

단위: 호, %

상 업	공장공원	건축노동	사무직	파 출 부	복 턱 방	미 정	계
4 (23.5)	2 (11.8)	3 (17.6)	3 (17.6)	1 (5.9)	1 (5.9)	3 (17.6)	17 (100.0)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분위기의 조성과 이를 위한 재촌가구주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져야 한다.

둘째는, 재촌가구주들이 자신감과 소신을 갖고 이농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직업훈련 및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한 이농의 잠재력과 적응력의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재촌가구의 이농 저해요인

인구이동의 한 유형인 이농은 선택적 과정이다. 즉, 어떤 농촌집단이나 농민 개인은 다른 집단이나 개인보다 더 쉽게 이농을 하며, 이러한 이농성향은 이농자의 연령, 성, 교육수준, 직업 등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

또한 이농은 발전과정으로서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다른 지역으로의 이농은 현거주지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생활, 좋은 교육기회, 사회적·위락적 면에서의 욕구충족을 위한 행위로서 이런 욕구의 충족을 통해 개인의 성취지위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농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여러 시각으로 조명되고 있다.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이농현상을 합리적인 경제행위인 동시에 두 지역간의 실제적인 임금격차와 이입지에서 이농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려 한다.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이농의 억제 또는 촉진요인으로 이입지에서의 적응력, 주택,

일자리, 지역사회내의 유대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의 의존 및 통합은 이농에 대한 사회적 구속력이 되어 이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회심리적 접근에서는 이농은 성취의 감소나 혹은 소망의 상승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미래의 거주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때 이농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농을 적응의 메카니즘으로 이해할 때 이농의 결정은 현재의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농의 촉진적 또는 장애적 요인을 염두에 두고 현재 재촌가구가 이농을 하려 할 때 어떤 문제가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재촌가구의 이농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도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3-29〉와 〈표 3-30〉과 같았다. 가장 큰 개인적 저해요인은 자금부족(43.1%)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재촌가구들이 보유한 소규모자본으로는 도시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생활을 위한 생업수단적 일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데서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농을 저해하는 두번째 요인으로는 노령과 무기술(34.8%)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농사 이외의 취업경험이 없는 데다 노령화된 가구주들이 이농했을 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연유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재산처분의 어려움(13.0%), 토지에 대한 애착심(4.5%), 부모봉양(4.5%)이 이농을 저해하는 개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산처분의 어려움은 노동력 부족으로 경지여건이 나쁜 농경지가 휴경되고, 토지거래도 없는 산간지대 주민에게

표 3-29 재촌 가구의 개인적 이농 저해요인

단위: 명 (%)

노 령 무 기 술	자 금 부 족	재 산 처 분 의 어 려 움	토 지 애 착	부 모 봉 양	계
70 (34.8)	86 (43.1)	26 (13.0)	9 (4.5)	9 (4.5)	200 (100.0)

표 3-30 재촌 가구의 도시적 이농 저해요인

단위: 명 (%)

도시생활의 답답함과 소외감	주거문제	생계불안	자식에게 푸대접	자녀교육의 어려움	계
81 (40.5)	73 (36.8)	34 (16.7)	9 (4.5)	3 (1.5)	200 (100.0)

주요한 개인적 이농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농촌주민의 이농을 저해하는 도시적 요인 중에서 도시생활의 답답함과 소외감(40.5%)이 가장 주요한 저해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전원적 농촌생활환경과 마을이란 원초적 자연집단적 생활에 익숙한 농민들이 이웃도 없는 익명의 도시에서 생활할 때 경험하게 될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문제(36.8%)가 농촌주민의 이농을 저해하는 주요한 도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도시에서의 주택 및 전세값 상승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데서 기인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제 4 장

이농민의 도시정착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1. 분석틀

가. 기존 연구의 분석틀

이농민의 도시정착과정을 독립된 연구주제로 하여 이들의 도시정착 과정에서 직면하는 욕구와 문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동원 과정에 대한 노력을 총체적이고 종단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농민의 도시이입에 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이주자에 대한 생활실태와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비교적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도시정착문제 연구를 위한 적나라한 이론적 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린 (Green)과 이온죽 및 이응교의 연구는 이농민의 도시정착과정 연구에 대한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 (Green)은 이촌시의 배경적 특성, 이동과 관련된 특성, 이동과정, 이동시 도움이 도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기 위하

여 도시적응 요인을 <표 4-1>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온죽은 귀환이농자의 특성, 동기, 이동과정 등에 관한 연구분석에서 도시적응의 정도가 귀환이동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도시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틀을 <표 4-2>에서와 같이 제시

표 4-1 그린(Green)의 변수: 이입자의 적응 차원

배경적 특성	적응 변수
현재 나이	A. 물질적 적응
현재 결혼상태	소득
학력	개인소득
전 직업(부의 직업)	가구소득
성	소비품 소유
이동과 관련된 특성	고용
출발지	근대적 부문의 비율
이전의 도시경험	대규모 업체에의 고용비율
농촌/도시 출발지	활동, 직업적 지위 및 산업
농업/비농업 배경	분포
이동과정	주거
이동시의 나이	주거의 질적 지표
이동시 결혼상태	이웃의 질적 지표
이동단위(가족/개인)	자가/세 여부
이동이유	밀도
이동시 도움	B. 사회적 적응
친족, 친구유무	소속집단
이입의 채널	방문대상의 선호
도움의 종류와 액수	도움의 원천
이주 직후의 주거	C. 태도 - 만족의 차원
	전통적 행동지표
	기회지표
	이동희망(%)
	개인적 만족

표 4-2 이온죽이 귀환이동 연구에서 분석한 도시적응 변수

I. 객관적 적응

1) 생태적 – 주거상의 적응

최초 이주시 정착한 이웃의 형태(예 : 판자촌, 공장지대, 주택지 등)

최초 정착한 이웃에 대한 친숙도(예 : 낯선 사람, 친구, 친척 등)

이 최초 정착지를 소개, 추천해준 사람(예 : 소개소, 친구, 친척 등)

임시주거와 주거 정착에 소요된 시간

최초 주거의 가옥소유여부(예 : 하숙, 삽월세, 전세, 자택 등)

도시내에서의 이사경력

2) 직업적 적응

최초의 직업 구하는 데 소요된 시간

구직에 도움을 준 사람

최초의 고용 지위(예 : 실직, 자영, 고용 등)

도시에서의 처음 직업종류

도시내에서의 직업이동 회수

3) 경제적 적응

저축이나 계 가입수

부 채

가정용품 소유

월수입

4) 사회적 적응

도시이주 후 농촌원주지 방문회수

도시거주 친척과 접촉

도시거주하는 과거 원주지의 이웃과의 접촉

도시거주하는 과거 원주지의 친척과의 접촉

도시에서의 사귄 새친구

도시 자발적 조직체 가입여부와 참여도

도시에서의 매스-미디어 접촉도

II. 심리적(주관적) 적응

이동당시 도시에서 영주할 의도

이동 도시이입에 대한 후회

농촌원주지와 도시이주지의 친구들에 대한 상대적 친근감

현재 살고 있는 도시를 “자기고장”이라고 느끼는 정도

도시이입후 도시를 떠나겠다는 의도

농촌 원주지와 도시의 생활조건(주거, 이웃, 자연환경,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의 비교 만족도

도시에서 생활조건(위와 비슷함)에 대한 만족도

표 4-3 이응교가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 연구에서 분석한 변수

1. 도시에의 정착		퇴사시 직위
1) 이촌후 주요 이력 (연도별)		월소득액
연령		재직기간
거주지		의료보험유무
학교		최초 구직에 도움을 준 사람의 직업
직업 (직위포함)		5) 사회적 정착 (이촌초기에서 현재까지 관계망 별 도움 정도)
주거상태		가족의 도움
주택소유		친척의 도움
소득액		고향친구의 도움
결혼상태		직장동료의 도움
2) 최종학력		학교친구의 도움
최종학력		고향방문 회수
전공분야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종류
학비부담자		지역차별 경험
3) 생태적 - 주거상의 정착 (최초 이주지에서 현재 이주지까지 주거지)		경찰, 검찰에 의한 통제 경험 사건발생시 도움을 준 사람
주소		6) 심리적 정착
지역의 형태		이촌시 도시 영주의사
이주이유		도시 이주에 대한 평가
지역을 소개한 사람		고향친구와 사회친구에 대한 비 교평가
이웃에 대한 친숙도		현재 지역에 대한 애착심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감
사용방수		7) 도시 정착시 가장 어려웠던 사례
4) 직업에의 정착 (최초 직업에서 현재 직업까지 변화)		8)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직장소재지		
업종		
입사시 직위		

표 4-4 이응교가 중점적으로 분석한 도시정착 과정

시기 분석내용	이촌 초기 (고등학교 시절)	이촌 중기 (대학교시절+군복무기)	이촌 후기 (군복무기이후-현재)
진로 학업	고등학교입학/취업 진학과정 면학과정	대학교입학/취업/입대 진학과정 면학과정	취업/전직 진학과정 면학의 꿈
직업	첫 취업과정 직업력 직장생활	취업과정 직업력 직장생활	취업과정 전직과정 직장생활
주거	첫 주거지마련	주거생활	주거생활 내집 마련
관계망	지연, 학연, 직연 종교연 이성교제	지연, 학연, 종교연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과정	지연, 학연, 직연 종교연 배우자 선택과정 결혼 생활

하였다. 이온죽은 그린(Green)의 적응변수를 발전시켜 객관적·주관적 적응으로 대별하고 객관적 적응을 다시 (1) 상대적 - 주거상의 적응, (2) 직업적 적응 (3) 경제적 적응 (4) 사회적 적응으로 세분하여 독특한 적응변수를 개발하였다.

이응교는 이촌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에 있어 <표 4-3>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촌시기별로 직면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동원에 대한 노력과정을 밝혀보기 위하여, 특히 <표 4-4>와 같은 분석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나. 이 연구의 분석틀

앞에서 살펴본 분석틀은 이농민의 도시정착 및 적응을 파악함에 있어 유용한 적응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분석변수를 원용하여 <표 4-5>에서와 같은 적응요인을 포함한 분석틀

표 4-5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변수

분석변수	조사내용
1. 배경적 특성	
1) 부모의 배경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학력 ○ 주된 직업 ○ 농지소유
2) 본인의 배경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배경(출생지, 출생서열, 가족유형, 가족의 사회계층)
2) 본인의 배경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배경(결혼연령, 혼인형태)
2) 본인의 배경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변수(나이, 학력, 종교, 건강, 군대경험 등 SES)
2. 이농직전 농촌생활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상황(영농규모, 영농형태, 영농실패경험 등 등)
2. 이농직전 농촌생활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상황(소득, 저축, 부채, 농외취업 등등)
2. 이농직전 농촌생활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상황(마을내 계층, 주택소유, 생활정도 등등)
2. 이농직전 농촌생활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친족, 친척, 이웃관계, 사회적 갈등, 사회참여 활동)
3. 이농결정과 이주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시기 ○ 이주원인·동기 ○ 이주결정방법
3. 이농결정과 이주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의 단위와 형태
3. 이농결정과 이주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시 도움(사람, 기관) ○ 재산처분
3. 이농결정과 이주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경로
3. 이농결정과 이주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이주지와 선택이유
4. 도시에의 정착 및 적응	
1) 생태적 - 주거상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이주지에서 현재거주지로의 이주까지의 이주사 및 거주사
1) 생태적 - 주거상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역, 지역의 형태, 이주이유, 지역을 소개한 사람, 주거의 질적 지표(소유형태, 규모, 사용방수 등)
1) 생태적 - 주거상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기간
1) 생태적 - 주거상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주거정착
1) 생태적 - 주거상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의 질적지표, 현재가격, 주택마련계획 및 실천방안
2) 직업적 정착	
2) 직업적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이주시부터 현재의 직업까지의 직업사

분석변수	조사내용
3) 사회적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직업, 직종, 재직(종사)기간, 구직의 소유기간, 구직에 도움을 준 사람·기관 - 입사·퇴사시 직위, 월 소득액, 구직시 어려운 점
5. 현재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촌초기에서 현재까지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도움 정도 -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의 도움내용과 도움 정도 - 모임, 조직체의 가입 및 참여
6. 농촌가족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생활(월소득액, 지출, 저축, 부채) ○ 경제활동 참여자와 활동내용 ○ 재산의 소유와 평가액 ○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 ○ 가정 생활용품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봉양 및 가족결합

을 작성하였다.

한편 현재의 도시정착 상태를 생업 및 주거문제 해결, 생업문제만 해결, 주거문제만 해결, 생업 및 주거문제 미해결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례분석의 중점적 내용은 가족배경, 이후배경과 과정, 주거상의 정착과정, 직업적 정착과정, 자녀교육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에 대한 문제해결에 있어 정착유형별 지원동원을 비롯한 적응적 노력을 어떻게 하여 왔고, 또 하고 있는지를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단위를 개인(가구) 단위로 하여 총제적이고 종단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농민 개개인의 도시정착과정에서의 역동적인 삶의 과정을 통한 도시정착에서의 적응사 내지는 생활사적인 의미를 엮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 있다.

2. 정착 유형별 적응사례

가. 생업과 주거 모두 해결

〈사례 1〉의 이주경로는 1964년 중학교 진학으로 대전으로 이주한 후 그 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다. 고등학교 졸업(1971) 후에도 귀향하지 않고 보험회사(8개월), 개인회사(1년 9개월)에 근무하다 군에 입대, 제대한 후, 단협임시직(2개월)과, 동아제약 외판원(1976. 9~1972. 2)을 하다, 부모봉양과 영농을 위해 1979년 귀향한다. 1987. 11월에 재이촌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대전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장녀의 교육 때문이다.

부인 제의로 갑작스럽게 이농하게 되어 이주지에서 생업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도 세우지 못한다. 이주지에 도착해서 구멍가게라도 할 요량으로 여기 저기 알아보는 중에 고향친구로부터 자기직장에서 경비직을 모집하는데, 자격조건(고졸 이상 학력자)이 맞으니 이력서를 내보라는 정보를 받고 곧바로 서류제출과 면접시험에 합격되어 채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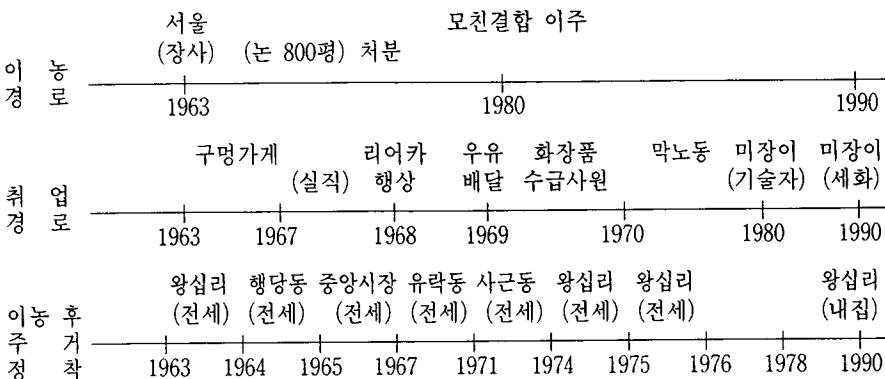
〈사례 1〉의 경우 이농하여 1개월만에 취업할 수 있었던 요인은 친구로부터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데다 고등학교 졸업이란 학력 때문이다.

주거정착과정은 이농년수가 짧기도 하지만 간단하다. 이주하기 전에

〈사례 1〉 연령: 43세, 학력: 고졸

이농경로	대전 (중학교진학)	귀농 (부모봉양·영농)	이농 (자녀교육)					
	1964	1979	1987. 11	1990				
취업경로	보험 회사	개인 회사	단협 외판원	농사	이농	본인 취업	부인 (파출부)	
	1971	1971	1976	1976	1979	1987. 11	1987. 12	1988
이농 후 주거지 정착	전세 (600만원)						주택구입	

〈사례 2〉 연령: 54세, 학력: 중졸



부인이 대전에 거주하는 여동생으로부터 전세값이 저렴한 지역을 알선 받아 구한다. 처음 정착지는 성남동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600만원에 전세집(방 3개, 부엌)을 얻은 곳이다. 그 곳에서 1년 10개월 살다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4,000만원에 구입하여 1990년 8월부터 살고 있다. 또한 짧은 기간내 내집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전답(논 900평, 밭 2,000평)과 임야(13,000평)를 처분하여 24백만원(주택구입 가격의 60%)의 뜬돈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전세방 회수대금 600만원과 전세방을 내준 돈 400만원과 부채 200만원 및 그동안 저축한 돈 400만원으로 해결한다.

〈사례 1〉의 경우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80여만원이나 되는데, 부인이 1988년부터 파출부 일을 하면서 매월 30만원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내집이 있고 본인과 부인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데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자녀는 2명밖에 되지 않아 큰 교육비의 지출이 없어 한달에 25~30여만원씩 저축도 하고 있다.

〈사례 2〉의 이주경로는 1963년에 부부가 논 800평을 팔아 서울 왕십리에서 구멍가게를 하기 위해 상경한 후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1978년 부친이 사망한 후 혼자 살던 모친을 1980년에 모셔와 같이 살고 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복덕방을 통해 구멍가게 자리터를

알아보기 위해 2번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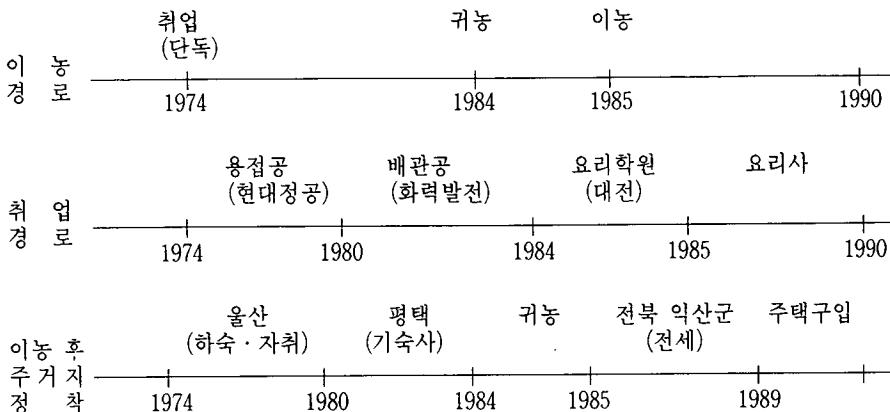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적응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이농 직후(1963 ~1967)부터 구멍가게를 3곳에서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난다. 실패 원인은 장사경험도 없는데다 서울로 갓 올라와 주민과의 면식이 없어 고객확보가 어려웠고(고객들이 통장이나 터주대감이 하는 가게를 많이 이용), 외상값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게를 실패한 후 귀농까지 생각했으나 동네사람이 부끄러워(논 800평 까먹었다 소리듣기 싫어) 가지 못하고 자포자기상태에서 실직상태에 있게 된다. 그 무렵 앞집에 살던 순경으로부터 리어카를 무료로 얻어 리어카행상을 1년 정도하다 장사도 시원찮고 힘이 들어 그만 두고 우유배달원과 화장품 대리점 수급사원이 된다(그곳은 신문구인광고를 보고 취업). 1970년에는 동네사람을 만나 뒷모두로 한 3개월 일을 익힌 후에 미장이 기술자가 되었고, 지금은 같은 마을 출신의 청부업자 밑에서 세화를 하고 있다.

<사례 2>의 경우 주거지이동과 정착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이농 직후부터 1967년간은 구멍가게를 하다 장사가 안되면 조금 뜯어 좋은 곳을 찾아다니느라 3번을 옮긴다. 1967년 구멍가게를 망쳐 먹은 후 집세싼 곳인 유락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전세방을 얻어 산 후 1978년 내집 마련 때까지 3번을 전세값 싼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이사한다. 1978년에는 왕십리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350만원에 구입하게 된다. 대지 35평(건평 20평)에 방이 4개나 되지만 무허가 주택이라 저렴하게 구입한다. 주택구입자금은 그동안 저축액과 방 2개를 전세놓아 충당했다.

지금은 재개발지역으로 평당 35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큰 아들 분가, 작은 아들 군입대로 3식구(모친, 부부)만 살고 있어 방 1개를 600만원에 전세주고 있다.

두 아들 중 장남은 대학원까지, 2남은 대학(2년 재학 중 군입영)까지 가르치고 있었으며, 자녀 대학재학시 부인이 가정부업으로 뜨개질 등을 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가구소득원 월 120~130만원이며, 2남의 학비마련을 위해 현재 월 60만원씩 저축과 계를 하고 있다.

〈사례 3〉 연령: 32세, 학력: 고졸



〈사례 2〉가 생업문제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장기술과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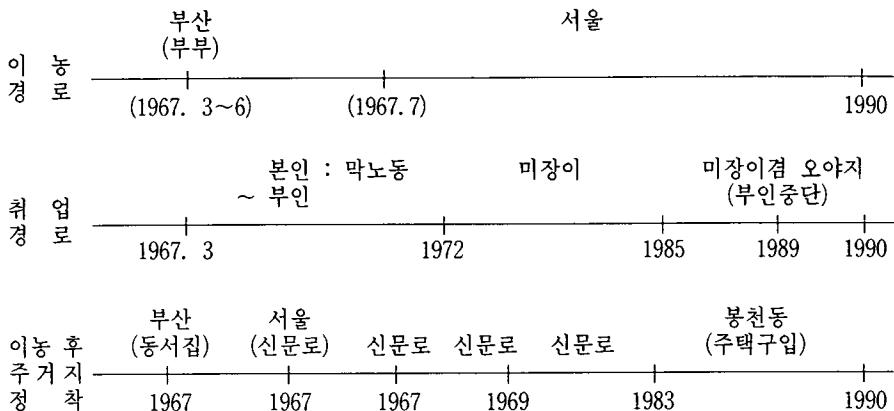
〈사례 3〉의 이주경로는 중학교 졸업 후 울산 현대정공 기능공으로 있는 친구 형의 소개로 취업하다가 1980~84에는 현대정공의 직장동료 소개로 평택화력발전소 건설회사에 배관공으로 취업한다.

전직이유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13만원 정도) 고향이 가까워서였다. 그러나 발전소 설비공사가 끝나 귀농한다.

귀농해서는 누나의 권유로 개인요리 학원을 6개월 다닌 후 2급요리사 자격증을 획득한다. 그 때 고속도로 예산휴게소에서 자동차정비소를 하는 동네 친구의 알선으로 해태관광주식회사 예산휴게소 식당에 요리사로 취업되어 1985년 채 이농한 후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다.

주거지이동 및 정착과정은 1974년 울산으로 이주한 첫 5개월 동안 하숙(월 38,000원)을 하였고 그 후에는 친구와 둘이서 월세방(보증금 15만원에 월 10,000원)을 얻어 자취생활을 한다. 그 후 평택에서는 회사기숙사에서 지낸다. 예산휴게소로 이주하여 결혼(1986. 4)하기 전까지는 전세방(50만원)을 얻어 자취하다가 1989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한다.

〈사례 4〉 연령: 54세, 학력: 국졸



주택은 대지 48평(전평 21평) 양옥집으로 그 동안 벌은 돈 780만원으로 구입한다.

연간 총소득액은 800만원이며, 생활비로는 매월 15~18만원 정도 지출한다.

여유돈은 교육보험(1,000만원)에 매월 226,000씩 불입하며, 모친에게 용돈 겸 생활비로 월 5만원씩 송금하고 있다. 비교적 적은 월급(50만원, 보너스 400%)으로 저축할 수 있으면서 주택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시골이라 생활비도 적게 들고 주택값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사례 4〉의 이주경로는 1967. 3에 부산 동서집으로 부부가 이주하여 방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아 살았다. 부산으로 이주한 것은 동서기복점과 식당을 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주이유는 논 1,200평을 지어 9식구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데 있다. 부산에 3개월 있다가 서울로 본인만 먼저 이주하여 하숙을 하며 공사판 막노동을 한다. 그런 생활을 하다 자신이 있어 3개월후에 부인과 장녀를 이주시켜 같이 생활하게 된다.

취업경로를 보면 부산으로 내려가 3개월 동안 막노동을 한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고향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건축노동을 1971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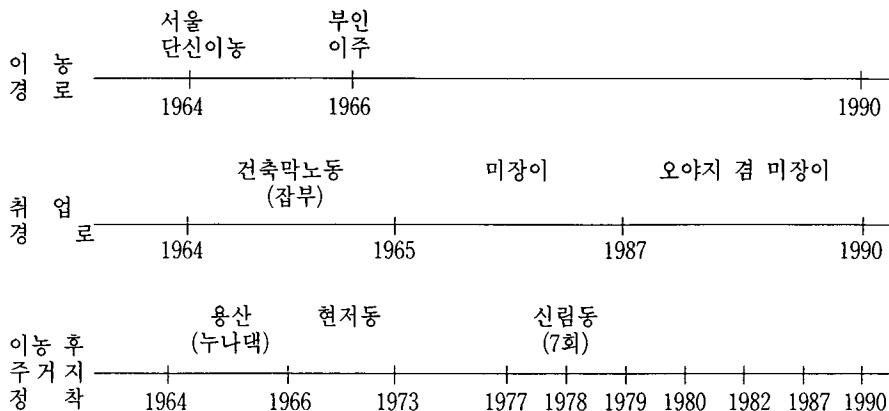
지 계속한다.

그런데 중·조금씩 미장기술을 익히게 되었고 1972년에는 미장기술자가 되어 1984년까지 계속하다 1985년부터는 미장이겸 오야지를 하고 있다. 미장일은 주로 고향동네 친구 2명과 충북 출신 1명과 4명이 다니며, 이들이 오야지가 되면 기술자로 본인이 오야지가 되면 그들이 미장기술자가 되어 일한다. 자금이 없어 큰 오야지(크게 하려면 3천만 원 있어야 함)는 하지 못하고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상가 밖에 하지 못하는데 요즈음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 오야지하는 것보다 미장기술자로 일당받고 일하는 편이 낫다고 한다.

〈사례 4〉의 경우 주거지 정착과정은 신문로 부근에서 주로 살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서울에 친척 등 가까운 연고자가 없는 데다 신문로 부근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사람이 많아 고독감과 불안감을 달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혼자 상경하여 2개월 동안은 동네친구 이모가 날품팔이자를 대상으로 하숙을 하는 집에서 보증금 5,000원에 월세 500원을 주고 혼자 생활한다. 그 후 보증금 5,000원에 월세 500원짜리 삼월세방을 얻은 후 부인을 올라오게 하여 같이 생활하는데, 이 때는 연탄불을 지필 수 없어 겨울에는 냉방에서 자야만 했다. 그 후 신문로 산동네에 전세방을 얻어 생활하다가 봉천동으로 이사하기 직전에는 건평 8평짜리 무허가 주택을 100만원에 구입하여 살다 300만원을 받고 팔아 현재 봉천동에 살고 있는 집을 사는데 보탰다. 현재 집은 건평 16.3평(복층방 3개)의 연립주택으로 1,300만원에 구입한다. 자금은 신문로집 판돈 300만원과 전세내준 돈 500만원과 그동안 저축한 돈 500만원으로 충당했고, 전세금은 3년에 걸쳐 내준 후 현재는 식구가 모든 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대로 벌어서 주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이 서울에 올라와서부터 1989년까지 건축공사장에서 일하며 벌었기 때문이다.

가족계획으로 1남 1녀를 두었으며, 장녀(26세)는 대학교육을 시켰으나 아들(21세)은 공부를 못해 고등학교만 졸업시킨다.

〈사례 5〉 연령: 54세, 학력: 중 2 토



한달 가구소득은 100만원(아들 25만원) 정도 되나 저축은 월 19만원 씩 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술을 좋아하고, 딸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쓴쓸이가 적잖은 데 있다.

나. 생업만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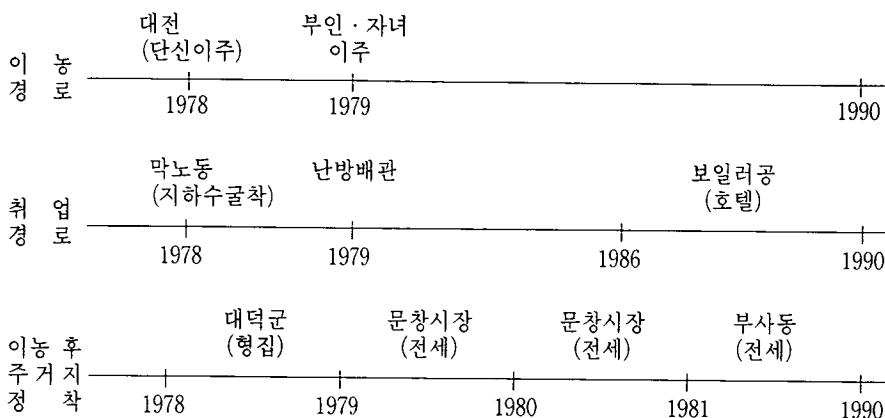
〈사례 5〉의 이농경로는 본인(1964)이 상경한 후 부모와 같이 살던 부인과 자녀가 2년 후에 상경하는 이농형태를 갖는다. 본인이 먼저 이농한 것은 형의 강경에서 사업(미싱 대리점) 실패와 본인의 영농실패(양계)로 논(3,000평)과 밭(2,000평)을 빚잔치로 처분하게 된 데에 있다.

취업경로는 막노동을 하다 1965년부터 미장기술을 익혀 1986년까지 계속한다.

1987년부터는 동료 3명이 합작으로 오야지를 주로 하고 있다.

〈사례 5〉의 경우 주거지 정착의 특징은 신림동 부근에서만 7번을 옮기며 17년간을 살아온 데 있다. 신림동에 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장립집사로 교회일 때문이다. 처음 혼자 상경하여서는 누나댁에서 2년여 동안 지내며, 도움을 받았다. 1966년에는 누나의 보조와 그간 번 돈으로 현저동에 무허가 주택(대지 20평, 방 2개)을 6만원에 구입하여 부

〈사례 6〉 연령: 52세, 학력: 국졸



인과 자녀와 지낸다. 이 때 무허가 주택이 철거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나 입주금 80만원이 없어 이주하지 못하고 입주권을 20만원 받고 팔았다. 그 돈과 누나가 15만원을 보조해 줘 신림동 달동네에 무허가 주택을 40만원 주고 구입한 후 팔았다 구입했다 하면서 4번을 이사 다닌다. 1981년에는 무허가 주택을 130만원에 구입하여 250만원을 받고 팔은 후로 전세살이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1100만원에 방 2개를 얻어 4식구가 거주하고 있다.

〈사례 5〉의 경우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 셋을 대학 교육시킨 데 있다. 장녀(30세 3년전 출가)는 전문대까지 장남(27세, 회사원, 월급 50만원)은 대학까지, 3녀(24세, 유아원 교사, 월급 30만원)도 전문대까지 교육시켰다. 이들 자녀를 대학교육시킨데만 총 24백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현재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은 총 200만원(본인 120만원, 자녀 80만원) 정도 되나 자녀들이 아직 취업한 지 얼마 안되어 특별히 저축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금년전세금 인상액 300만원에 대한 부채가 있다.

주택마련계획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세우지 못했으며, 앞으로 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다.

〈사례 6〉의 이농경로는 본인이 먼저 단신이농 후에 나머지 가족을 이농시킨 이농유형을 취한다. 이농이유는 화전정리사업으로 주소득원을 이루었던 담배(1,200평)를 경작할 수 없어 자녀교육(장남 고1)은 물론 6식구가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1년간 망설이다 1978(42세)에 단신이농한다. 일년간 막노동(지하수 굴착)을 해 본 결과 자신감이 있어 1979년에 집과 소를 팔고 그동안 벌은 돈을 합쳐 300만원에 전세방을 얻어 나머지 가족을 이농시킨다.

취업경로는 막노동을 거쳐 난방배관기술을 익혔고 그 기술이 계기가 되어 현재는 호텔 보일러공(자격증은 없음)으로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 처음 1년간은 대덕군에 사는 형네집에서 거의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지하수 굴착작업을 일당 7천원씩 받고 한다. 그러나 머리에 큰 부상을 받고 입원하여 퇴원한 후에는 같이 일하던 친구로부터 난방배관시설업자를 소개받아 1985년까지 계속한다.

일당으로 처음에는 8천원 받았으나, 1985년에는 25,000원을 받는 기술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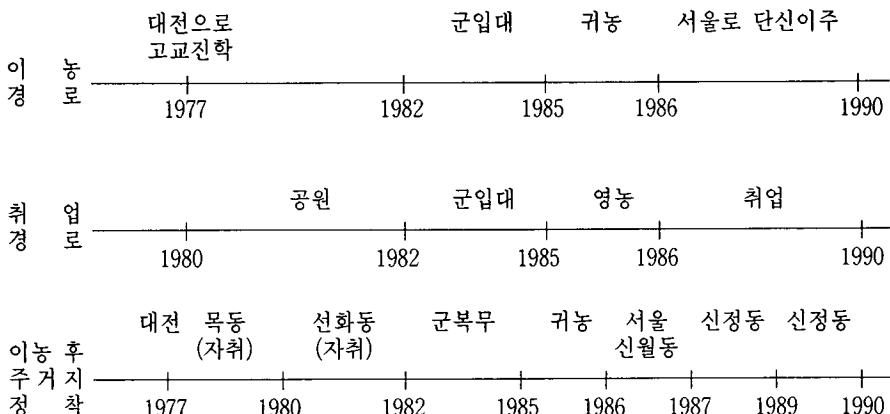
현재의 호텔 보일러공으로의 취업은 호텔 건축시 일을 하다 사장의 눈에 들어 취업하게 된다. 1986년에는 월 30만원, 1987년에는 40만원, 1988년에는 45만원을 받다가 1989년부터는 50만원을 받고 있다.

이농 후 주거지 정착의 특징은 형네집을 제외하고 시장 부근에 주거지를 정했는데, 그 이유는 부인이 이농 직후부터 시장에서 마늘·채소 등을 파는 노점상을 하기 때문이며, 본인의 한달 벌이만도 60여만원이 된다.

자녀는 아들 넷만 두었는데 장남(28세, 기혼)은 대학교까지 가르쳤고(현재는 통일교원으로 일본 체류), 이남(25세)은 머리가 나빠 국민학교 밖에 가르치지 못했다. 3남과 4남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이다.

한달 가구원 소득은 110여만원이 되며 생활비로는 월 35만원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저축한다. 현재 저축액은 은행

〈사례 7〉 연령: 30세, 학력: 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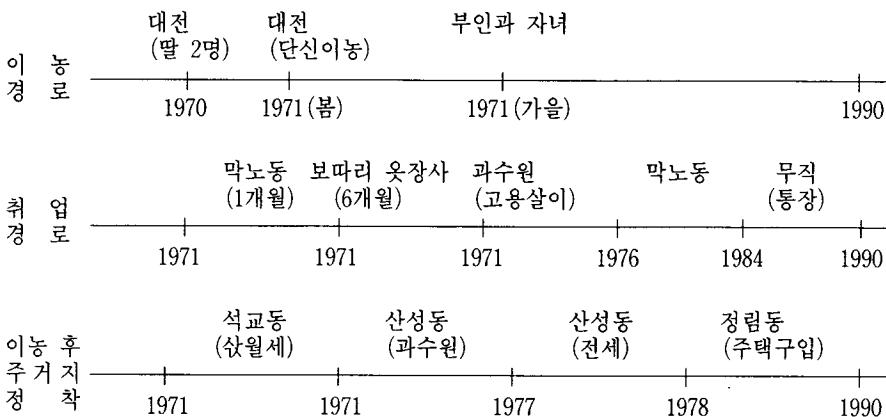
에 1천만원이 입금되어 있고, 2천만원짜리 적금(월 368,000원)을 붙고 있다. 저축의 목적은 주택구입과 자녀교육비 마련 때문으로 적금이 끝나는 2~3년 후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다.

〈사례 7〉의 이주경로는 고교진학을 위해 대전으로 이동하여 졸업 후 군 입영까지도 계속 대전에서 머물다가 군 제대 후 귀농, 주로 농사일을 하다 취업이 되어 재이농하는 단신이농유형이다. 군 제대 후 재이농한 이유는 농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젖소를 키우며, 정착할려고 영농 후계자자금까지 신청했으나 당시 소 파동, 돼지 파동으로 의욕을 상실한 데다 주위사람들도 이농을 권유하던 차 당숙 회사에 취직되어 이농한다.

취업경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원 모집광고를 보고 의류제조업체에 생산직 공원으로 취업하여 군 입영 전까지 다닌다. 제대 후에는 친구소개로 서적 외판원과 모신문 판촉세일도 하다가 1986년 4월에 당숙이 하는 부동산임대업 및 건축회사에 취업하여 근무중에 있다.

주거지 정착과정을 보면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동생 2명과 같이 전세방(목동)을 얻어 자취생활을 하다가 막내동생 학교부근(선화동)으로 옮긴다. 서울로 취직되어 올라 온 뒤에는 신월동에 300만원에

〈사례 8〉 연령: 61세, 학력: 무학



전세방을 얻어 자취한다. 1988년 4월에 결혼한 후 신정동에 전세금 500만원에 방을 얻어 생활하다 1990년 2월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신정3동)에 1,1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다.

월 소득은 부인의 부업소득 10여만원을 포함하여 80여만원이 되며, 3년후 내집마련을 목표로 생활비(월 20여만원)를 최대한 줄여 매월 50여만원씩 저축하고 있다.

다. 주거만 해결

〈사례 8〉의 경우 이주경로는 자녀가 먼저 이농한 후 가구주 단독이 주를 통해 나머지 가족을 이농시킨 3단계 가족결합형 이농형태를 취한다. 〈사례 8〉의 가구주의 이농배경은 자기 땅 없이 농사지어 먹고 살기 어려운 데다 영농실패에 원인이 있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친척이 이농하여 막노동을 하는 것이 농사짓는 것보다 나오니 같이 이농하는 권유로 이농하게 되며, 가족과 같이 이농을 하지 못한 것은 무기술, 무학력, 나이 먹어(42세) 자신감이 없었던 데 있다.

취업경로는 막노동을 하다가 이웃을 만나 보따리 옷장사를 소개받고 그를 따라 5일장 다니며 장사를 시작하나 장사경험이 없고 물건도 팔

리지 않아 걱정하던 중 이모의 소개로 과수원 고용살이를 한다. 그러나 돈이 모이지 않아 그만두고 1976년에는 막노동을 시작하여 1984년 까지 계속한다.

나이도 먹고 몸도 성치않아(상이용사) 그것도 그만두고 1985년부터는 통장일을 하며, 소일하고 있다. 부인은 1977년부터 빼스회사 세차원으로 취업되어 현재까지 다닌다(월급 20만원). 장남은 타이루 기술자로 벌이가 괜찮으나 자기집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전혀 보조가 없다. 2남(29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 다녔으나 원호청 추천으로 이리직업훈련소에서 귀금속가공 직업훈련을 1년간(1986) 받은 후 이리 귀금속가공공장에 3개월 다니던 중 심장수술을 받은 후 출곧 집에서 요양중에 있다.

주거지 정착과정을 보면 현재의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기까지 3번의 주거지 변동이 있다. 현재의 주택은 1979년 원호청에서 300만원을 장기·저리로융자받고, 큰 사위한테 200여만원을 빌려 660만원에 구입한다. 사위한테 빌린 돈은 계를 들어 갚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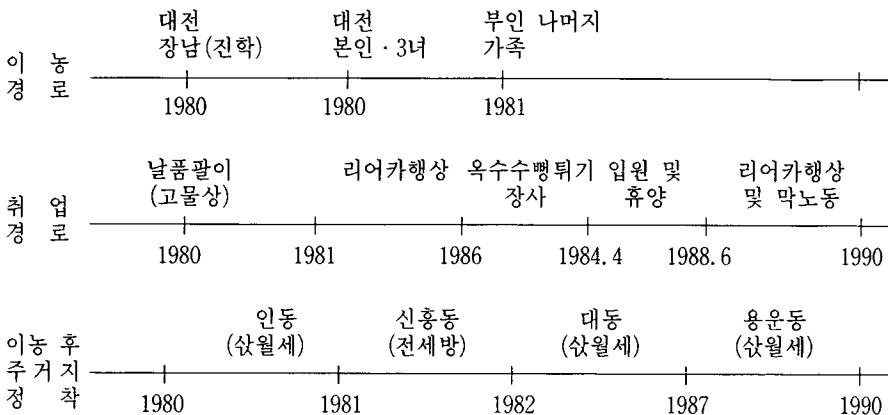
현재의 가구 총 소득은 42만원(연금 15만원, 통장 수당 7만원, 부인 월급 20만원)으로 생활비 40여만원을 겨우 충당하고 있어 저축은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생계와 주거 모두 미해결

〈사례 9〉의 이주경로는 장남을 대전으로 유학시킨 후 가구주와 딸이 2차로 이농하고 3차로 부인 및 잔류자녀를 이농시키는 이주형태이다. 가구주는 화전정리사업으로 산전경작이 어려워진 데다가 장남의 교육을 농사지어서는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후 맞벌이라도 할 생각에서 이농한다. 이주하기 전에 대전에서 막노동을 하는 처남을 2번 찾아가 일자리에 대한 사정을 알아본 후 이농을 결심하나 무학력, 무기술, 고령(47세)으로 자신이 없어 부인과 자녀는 잔류시킨다.

1년여 동안 도시생활의 경험을 쌓고 맞벌이가 농사(1,300평)짓는 것

〈사례 9〉 연령: 57세, 학력: 무학



보다 낫다고 생각한 후 나머지 가족을 이농시킨다.

취업경로는 날품팔이에서 시작하여 계속 막노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기술, 무학력인데다 나이마저 많고 자본이 없는데 있다. 처음에는 일당 6천원을 받고 고물상에서 일하나 힘이 들어 그만 둔다. 그 후 친구의 소개로 리어카행상을 한다. 수입은 하루에 1~2만원 벌어지만 날씨가 궂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 한달 수입도 30여만원 정도 밖에 벌지 못한다.

리어카 행상은 보통 4~5십리 거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몹시 힘이 들었다. 그 후 리어카 행상을 하던 친구의 소개로 옥수수 뻥튀기 장사를 하게 되고, 수입은 일당 2~3만원 벌이가 되어 괜찮은 편이었으나 늑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하지 못한다. 1988년 11월부터는 리어카 행상을 다시 시작하나 한달도 못되어 교통사고를 당해 1989년 6월까지 입원하게 된다.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받긴 했지만, 자녀교육비와 생활비로 쓰여진다. 금년부터는 리어카 행상을 하거나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하지만 나이 먹어 힘든 일은 할 수 없어 일당 15,000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

주거지 정착과정을 보면 삿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

표 4-6 사례연구 대상자의

성명	연령	학력	동거 가구 원	이주원인		경제적적응				가구소득 계	
				이주 연도	이주 이유	경제활동			가구원 본인		
						본인직업	이주후 전직 회수	가구원 본인			
남○○	42	고졸	5	1987	자녀교육	회사원(경비직)	0	부인(파출부)	50	30 80	
박○○	54	중졸	3	1963	전업	미장공(세화)	5		130	0 130	
양○○	54	국졸	4	1967	돈벌이	미장공(오야지)	2		80-90	0 80-90	
김○○	32	고졸	4	1984	취업	요리사	0		50	- 50	
송○○	52	국졸	4	1978	돈벌이	배관공	4	부인(시장장사)	50	60 110	
조○○	40	고퇴	4	1980	취업	보조경매사	3	부인(부업)	60	10 70	
노○○	37	고졸	4	1978	가정불화	공장관리	3		70	- 70	
유○○	58	국졸	6	1984	가족결합	경비	2	아들·딸 취업 부인취업(세차부)	20	80 100	
양○○	61	무학	6	1971	돈벌이	무직	3		22	20 42	
서○○	54	중퇴	4	1964	영농실패	미장공(오야지)	2	장남취직 2녀취직	120	80 200	
천○○	39	중졸	4	1982	돈벌이	회사원(현장소장)	5		100	- 100	
양○○	32	국졸	3	1988	돈벌이	용접공	1		60	- 60	
정○○	32	국졸	4	1975	돈벌이	식당업	5		60-70	60-70	
서○○	33	고졸	5	1979	돈벌이	광고간판업	4		70-80	- 70-80	
최○○	42	중졸	4	1965	가정불화	운전기사	6		60	- 60	
박○○	35	국졸	3	1972	돈벌이	9급기능직	4		60	- 60	
오○○	36	고퇴	4	1980	돈벌이	서적외판원	4		40-50	- 40-50	
유○○	30	고졸	3	1986	전업	회사원	0	부인(부업)	60	10 70	
윤○○	32	국졸	3	1973	돈벌이	배관설비업	4		150	- 150	
정○○	57	무학	6	1980	자녀교육	막노동	4	부인(시장장사)	20	30 50	
이○○	40	중졸	5	1986	돈벌이	우유배달	1	부인(공장취업)	80	30 110	
이○○	56	국졸	4		돈벌이	가게	2	아들(화원취업)	30	30 60	

정착상황 요약

주 거 지 확 보			적응 또는 부적응 요인			
주 택 보 유	이주후 이주 회수	주택마련계획	적 응 요 인	부 적 응 요 인		
			생계문제	주택문제	생계문제	주택문제
자가	2	해당무	· 고학력 · 부인경제활동 · 기술(미장이)	· 부모유산		
자가	8	해당무	· 기술(미장이) · 부인경제활동 · 기술(요리사)	· 무허가주택구입 · 저축		
자가	6	해당무	· 기술(미장이) · 부인경제활동	· 무허가주택 구입		
자가	1	해당무	· 기술(요리사)	· 시골거주 · 저축		
전세(1,600만원)	4	저축	· 기술(난방) · 부인장사			
자가	9	해당무	· 학력 · 젊음	· 해외근로자 취업(몽돈)		
전세(2,000만원)	6	주택청약예금 가입	· 학력 · 연줄			
자가	1	해당무	· 자녀취업	· 농지소유		
자가	4	해당무	· 무기술 · 저학력 · 불건강	· 처분		
전세(1,100만원)	9	주택청약예금 가입예정	· 기술(미장이)			· 자녀교육 (3명대학교육)
전세(1,250만원)	7	주택청약예금 가입	· 기술(미장이)			· 적응기간 젊음
전세(1,150만원)	3	저축(월 23만원)	· 기술(용접공)			· 적응기간 젊음
월세(보증금 500, 月 7만원)	6	없음	· 기술(요리사)			· 무유산
월세(보증금 300, 月25만원)	5	주택청약예금 가입	· 기술 (간판광고업)			· 무유산
전세(1,200만원)	8	없음	· 기술(운전사)			· 무유산
전세(500만원)	7	저축(月 22만원)			· 무기술 · 저학력	· 무유산 · 정착기간젊음
전세(500만원)	4	주택청약예금 가입				
전세(1,000만원)	3	저축(月 26만원)	· 연줄			· 정착기간젊음
월세(보증금 500, 월22만원)	6	주택청약예금 가입	· 기술 (배관설비)			· 무유산
삼월세(월5만원)	5	없음	· 부인경제활동			· 자녀교육
월세(보증금200, 月 2만원)	4	주택청약예금 가입	· 젊음 · 부인취업			· 무유산
무료차가	3	없음	· 부인경제활동	· 음주, 저학력	· 무유산	

가 자녀교육비 충당 때문이다.

자녀는 3남 4녀로 7남매를 두고 있다. 위로 딸 셋은 출가했고, 장남(25세)은 울산공대 3학년에 재학중인데, 셋째 사위의 덕을 많이 본다. 2남(22세)는 청주대 국악과 3학년에 재학중 군 입영으로 휴학중에 있다. 2남은 고등학교 시절 국악학원에 다니며 대금을 배웠는데, 학원 원장으로부터 소질을 인정받아 학원 원장이 입학금을 내주는 등 도움이 컸다. 3남(20세)도 실업전문대에 입학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군에 입영하여 휴학중에 있으며, 막내딸(18세)은 금년에 여성 졸업반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모건설 회사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지원과 부인이 이농 직후부터 시장에서 야채, 떡 등을 파는 노점상을 하여 한 달에 20여만원씩 벌고 있고, 애들도 방학동안에는 막노동 등 벌이를 하여 학비마련에 도움을 주었던 데 있다. 그리고 영세민으로 1984~89년까지 책정되어 자녀학비금을 면제받은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달 수입은 50여만원 되지만 자녀교육비 등이 많이 들어 저축은 하나도 못하고 있으며, 주택마련 계획도 전혀 없다. 한편 사례조사 22명에 대한 이농배경 및 도시정착 - 적응상황에 대한 요약내용은 〈표 4-6〉에서와 같다. 이에 의하면 기술이 있는 사람은 생계해결에 어려움이 적었으며, 주택문제 해결은 자본을 가졌거나 무허가 주택의 소유 또는 해외근로자로 파견되어 뭇돈을 쥐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 결합이주 가능성 사례분석

사례조사 분석자 22명 가운데 부모가 고향에 거주하고 있어 향후 부모와 합산하여 살 수 있는 가능자는 8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합산 가능성과 그 저해요인을 사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사례 1

부(69세)와 계모(60세)가 논 1,370평을 소유, 경작하며, 고향에서 살고 있다. 이농 아들(42세)은 성남시에서 기사(장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 4식구가 전세 1,200만원(방 2개)에 살고 있으며, 장남의 한 달 수입은 월 60여만원 된다. 아들은 여전이 되는대로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며, 그 여전은 주거공간의 확보와 이를 위한 부모의 유산상속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친은 장남한테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주요원인은 부인이 계모인 데다 장모(80세)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친은 후처에서 난 7남매 중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5남에게 노후를 의지할 생각이라 한다. 이러한 가정사정으로 미뤄볼 때 부친이 장남과 가족결합을 위한 이주는 장모와 현재 부인이 사망하고 혼자 남게 될 때 그 가능성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례 2

부(65세), 모(60세)가 고향에서 논·밭 1,300여평을 짓고 있다. 아들은 3형제 중 장남(40세)으로 4식구가 건평 13평(방 3개)짜리 단독주택에 살면서 월소득도 70여만원(부인 부업소득 10만원)이 되어 부모를 모실 여전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본인은 부모를 언제라도 모시겠으니 올라오시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하고 있다. 한편 부친은 소아마비로 한 쪽 발을 절기 때문에 농사일은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아들네 한테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모친은 도시가 답답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을 때까지 3남(아직 미혼)을 여우살이 시켜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아들네 한테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례 3

부(61세), 모(57세)가 논 7,210평을 지으며, 고향에서 살고 있다.

아들 형제가 이농하여 장남(37세)은 인천에 살면서 매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관리인을 하며, 월급은 70여만원 받고 있다. 현재 주거는 전 세 2천만원에 17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부모도 경제력이 있고 장남도 부모를 모실 능력은 있지만 부모는 도시는 답답하여 못살겠다는 이유와 아들한테 가면 며느리 눈치보아 생활이 편치 않으니까 차라리 정든 고향에서 힘닿을 때까지 농사지며 살겠다고 한다. 한편 장남도 부모와 동거하는 데 부정적 입장은 취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세대 차로 서로가 불편할 것이란 점 때문이다. 장남은 결혼하여 부모와 같이 살았지만 이농한 주요원인이 아버지와의 뜻이 맞지 않는 데서 오는 가정불화 때문이었다고 한다.

■ 사례 4

모(50세)와 막내(14)가 고향에서 같이 살고 있고, 장남인 본인을 비롯하여 여섯 형제가 이농하고 있다. 자기 땅이 한 평도 없고 남편도 3년전 위암으로 세상을 뜯 후 혼자 품팔이를 주로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나 이농한 아들한테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장남은 건축설비업을 하고 있어 월수입은 150여만원(이 중 생활비가 70~80만원) 정도 되고 있으나 가게세만도 월 22만원이 지출되므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다.

장남으로서 부모님 모실 의무감이 있어 모시고 싶지만 모실 경우 동생도 같이 데려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 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실 수가 없다고 한다. 부모도 역시 장남이 집이 없어 갈 수가 없다고 한다.

<사례 4>의 경우에는 장남이 주거공간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막내동생이 독립해야만 부모와의 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사례 5

부(68세), 모(59세)는 고향에서 논(1,300평), 밭(750평)을 경작하며

살고 있다. 아들은 4형제를 두었으며, 장남은 불구자(오른손 절단)로 생활능력이 없어 복덕방을 출입하며 구전이나 벌고 며느리가 벌어 먹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 2남(36세)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기술이 없어 서적 외판원을 하고 있다. 월수입은 40~50만원으로 생활비(월 30여만원)를 제외하고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월 15만원씩 저축하면서 지금은 500만원 전세방에서 4식구가 살고 있다.

부모는 장남이 불구자로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2남한테 노후를 의지할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2남은 주택여건만 허락하면 모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이 장남이 있는데 왜 둘째가 부모를 모셔야 하느냐 하면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부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힘들겠다고 2남은 말하고 있다.

■ 사례 6

부(63세), 모(53세)는 논(380평), 밭(770평)을 경작하며, 살고 있고 아들 셋은 모두 객지에 나가 있다. 부모가 노후를 의지하기를 희망하는 장남(32세)은 조치원에서 현재 식당(중화요리)을 며느리와 같이 하고 있다. 장남은 여러 곳을 전전하다 막 정착을 하여 자영으로 장사를 시작한 것이 1989년부터이다. 한달 수입은 60~70만원 되지만 가게 월세 7만원을 포함하여 한달에 40여만원의 생활비를 쓰고 있다. 가게 규모는 18평으로 방은 1개 뿐이며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7만원을 주고 있어 경제력이 아주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장남도 부모를 모시고 싶지만 부모 모실 주거공간이 없어 모실 수가 없고 부모들도 단칸방이라 아들한테 갈 수도 없지만 가봐야 답답하니 차라리 농촌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아직은 체념상태에 있다.

■ 사례 7

모친(63세)만 시골에 혼자 살고 있다.

논은 1,400평이 있으나 임대를 주고 농사는 짓지 않는다. 아들을 하

나 밖에 두지 못했는데, 성남에서 미장일을 하며, 월수입은 100만원 된다. 생활비 50여만원 제외하고는 주택마련을 위해 월 35만원씩 저축하고 있다. 1,250만원에 독채 전세를 얻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주거공간도 있다. 장남도 모친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싫어 같이 와서 살기를 권유하지만 어머니는 도시생활은 답답하여 못산다고 하시며, 기력 있을 때까지 시골에서 있겠다고 하여 모시지 못하고 있다.

■ 사례 8

부친이 1963년 돌아가신 뒤 모친(74세) 혼자서 시골에 살고 있다. 자식은 1남 5녀를 두었으나 지금은 모두 결혼시켰고 장남(32세)은 요리사로 취업을 하여 월급은 50만원 받는다. 1989년에는 직장부근(전북 익산군)에 780만원 주고 집도 사서 아들내외와 손주가 살고 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매달 5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어머니 혼자 사는 것이 딱하고 자식의 도리가 아니어서 모시고 살려해도 모친이 거부하고 있다.

모친의 거부이유는 해수병이 전염될까봐 그런다고 하는데, 아들한테 잘 경우 친구가 없어 심심하고 또 기침을 심하게 하니 며느리 보기가 민망스러워 그럴거라고 아들은 말하고 있다.

4. 이주경로와 도시 정착과정 사례

사례 1 남○○, 43세, 상고졸, 회사원(경비직)

2남 4녀 중 2남으로 태어났고,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논 900평, 밭 2,000평과 임야 13,000평을 상속받았다.

결혼은 친구의 소개로 현재의 부인과 2년여 동안 연애하다 동거생활로 곧 바로 들어갔고, 첫 아이를 갖게되어 군 복무중인 1974년에 구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농촌을 처음 떠난 것은 중학교 진학 때문으로 대전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고등학교까지 마친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선배 추천으로 동방생명보험회사에 입사(1971. 3)하여 3만여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그 해 10월에 그만두었는데, 그 이유는 보험가입 모집실적이 저조하여 동료 및 상사보기가 민망스러워서이었다. 그 후 친지를 통해 건설용역 개인회사에 취직되어(1971. 11) 근무하다 군 입영(1973. 5)으로 그만 둔다. 제대 후(1976. 6)에도 대전에 거주하며, 큰 매형의 배경으로 남이면 단위조합에 임시고용직(월급 3만여원)으로 2개월 정도 근무하던 중 신문 구직광고를 보고 동아제약 외판원(1976. 9~1979. 2)으로 자리를 옮겨 취업하였다.

그러던 중 큰 며느리와의 의견충돌로 같이 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모로부터 귀향하여 같이 살자는 제의가 있었고, 본인도 귀농하여 인삼농사를 지으면 봉급생활못지 않게 몫돈을 움켜쥘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귀향을 결심한다.

귀농하여 마을 주변 밭에 인삼을 매년 500~600평씩 재배하고 소도 2마리를 키워 연간 500~600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1983년에는 상주군 처가동네에 농협, 인삼조합에서 영농자금을 융자받아 5,000여평에

인삼을 경작하였으나 작황부진으로 투자액(총 2,000여 만원) 정도만 겨우 회수함으로써 귀농 직전의 계획이 수포가 되었다(지금도 귀향 때 가지고 간 천여만원을 친구말대로 대전에 집을 사놓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남○○의 재이촌은 1987년 11월에 이루어진다. 당초 뜻돈을 벌겠다는 계획차질로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던 차, 대전에서 외가댁에 기숙하며 중학교에 다니던 장녀가 외가댁사정으로 하숙 내지 자취를 하여야 했다. 형편상 자취를 시켜야 했는데, 이에 부인이 딸만 고생시키게 되니 대전으로 이동하자고 제의한다. 그러나 본인은 부친을 모셔야 하고, 이동하더라도 헐음한 집이라도 장만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취한다. 그렇지만 부인이 대전으로 전세방을 보러 다녔고, 대전에 있는 여동생도 이동을 권유하여, 부모와 상의하여 이동을하게 된다. 부인이 이동을 제의한 후 떠나기까지 1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동네사람들도 이동사실을 모를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동시에 남○○는 인삼밭 600평을 400만원에, 키우던 소 2두를 200만원에 처분한 후 그 돈으로 성남동 영세민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여동생의 알선을 받아 방 3개, 부엌이 딸린 허술한 한옥을 독채 전세내에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이동시 논(900평)과 밭(2,000평)은 같은 마을에 사는 큰 형한테 쌀 3가마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해 주었으나 살던 집은 공가로 놔둔 채 5식구가 이사한다.

급작스레 이동한지라 남○○는 이동 후 1개월 정도는 생활방도를 강구하면서 보냈다. 그 즈음 같은 마을 출신으로 대전에 나와서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자기회사에서 경비원 1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자격조건(고졸 이상 학력수준)이 맞으니 응시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이력서 제출과 간단한 면접시험을 거친 후 채용된다.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며, 수당 포함 50만원(본봉 256,000원)의 월급과 연 400%의 상여금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업무가 어색하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힘이 들었지만 2개월 정도 근무하니 이력도 생기고, 하는 일에 비해 보수도 괜찮고 자녀학자금지원 등 복리혜택도 있어 지금은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인도 2년전부터 파출부로 나가 일하면서 매월 30만원을 벌고 있어 월가구소득도 80여만원이 된다.

처음 성남동 전세집에서는 1990년 8월까지 살다가 그 해 9월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여 이사온 후 계속 살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대지 32평에 건평 13평(방 3개, 부엌 1개)의 단독주택으로 4천만원에 구입하였다. 주택구입자금은 논(900평)과 밭(2,000평)을 처분한 1,230만원과 임야(12,700평)를 처분한 1,200만원에 먼저 살던 전세집값 600만원에다 부채(200만원)와 전세방 하나를 세준(400만원) 대금과 그동한 저축한 돈으로 충당하였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로는 큰 딸(고1), 장남(중2재), 이녀(국5재)가 있다.

생활비로는 매월 5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음식료비가 약 절반이고 자녀교육비만도 120,000원씩 소요되고 있다. 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은 장남과 이녀를 태권도장과 주산학원에 보내기 때문이며, 장녀는 장학생으로 큰 돈은 들지 않는다.

저축는 전세방값 400만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3백만원짜리 적금(월불입액 16만원)과 장남을 위한 교육보험(월불입액 9만원)에 매월 25만원씩 불입하고 있다.

남○○는 3개의 비공식모임에 가입하고 있다. 직장동료 12명으로 구성된 친목계는 직장동료간의 친목을 다지며 애경사시 부조(15만원)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월회비는 5천원으로 적립하였다가 애경시 부조금으로 사용되고, 매월 1회씩 계원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데, 이 때 경비는 계원이 돌아가며 부담하는데 5~6만원이 소요된다. 이 외에 국민학교 동창계와 위친계가 있다. 동창계(15명)는 봄·가을로 부부동반하여 관광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비용은 50%가 본인 부담이다.

도시경험이 많아 도시생활에 어려움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생활정도는 중의 하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농촌을 떠나 온 것을 잘 한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교육 때문에 계속 도시에 거주할 계획이다. 직장을 은퇴한 후에는 상업(수퍼마켓)을 하고 싶으며, 이를 위한 사업자금(3~4천만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더욱 저축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향에는 일년간 10여회 찾아갔지만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서 그 전 만큼 자주 방문을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남○○씨의 정착과정에서의 적응에 도움적 요인으로는 비교적 젊은 데다 도시경험이 있고, 고졸이란 학력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부부가 모두 건실하게 살아보려는 생활의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례 2 박○○, 54세, 종출, 미장공(세화)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 났고, 부모(부, 1978년 사망)로 부터 논 3,000평을 상속받았다.

결혼은 군 제대 후인 26세(1962) 때에 면내 다른 마을에 사는 현재의 부인과 중매에 의한 구식으로 식을 올려 2남을 두고 있다.

농촌을 처음 떠난 해는 1963년으로 부인과 젖먹이 장남과 함께 서울로 온다. 결혼 후 부모를 모시며 농사를 지었으나 당시 서울에 사는 외삼촌이 법원에 임시직으로 취직시켜 준다고 하였고, 모친도 몸이 약하니 취직을 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취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였고, 또 임시직이라 확실한 신분보장도 없어 망설이게 되었고, 주위사람들도 그 돈으로 차라리 서울에 가서 구멍가게를 하는 편이 뱃속 편하다는 말을 하여 확실한 결정을 못하다가, 취직을 포기하고 구멍가게를 하는 것으로 가족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가게자리와 전

세방을 얻는 등 사전정보수집차 서울에 2번 올라와 왕십리에 자리를 잡기로 하였다. 가게와 전세방을 얻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논 800평을 처분하였다.

왕십리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구멍가게를 시작하였으나 경험도 없고 안면이 없어 경우 먹고 살 정도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하였으나 그것도 통장가게에 고객을 뺏겨 1년남짓(1963~63)밖에 할 수 없었다.

이후 행당동 영세민 촌에서(1964~64), 중앙시장 부근(1965~66)에서 구멍가게를 하였지만 외상이 많고 계중에는 외상값을 갚지 않고 이주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등의 이유로 장사가 안되어 장사밑천을 거의 깨먹게 되었다. 하는 수 없어 가게를 처분하고 집세가 싼 유락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전세방을 얻어 이사한 후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빈들거리고 놀 수 밖에 없는 실직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귀향까지도 생각해 보았지만 동네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움과 체면이 서지 않아 일단 귀향은 할 수가 없었다.

이럴즈음 앞집에 살던 순경(부인끼리는 절친하게 지냈음)으로부터 파출소에 있는 리어카를 줄테니 놀지만 말고 행상이라도 해 보라는 권유를 받게되었고, 그 말에 자극을 받아 청량리, 중앙시장에서 채소, 고구마 등을 사다가 주택가를 찾아다니며 파는 리어카 행상(1968~69)을 1년 남짓 하였다. 그러나 리어카 행상도 다리품만 팔고 고무신만 축널 뿐 벌이는 시원찮아 4식구가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빠듯하였다.

1969년에는 리어카행상을 그만두고 신문구직광고를 보고 우유배달원이 되어 남대문에서 행당동 일원에 우유배달을 5~6개월한 뒤 시원찮아 그만둔다. 그 뒤 구인광고를 보고 화장품대리점 수급사원이 되기도 한다.

1970년에는 고향아는 사람을 통해 성일건설 잡부로서 홍익대학 건축현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면서 미장기술을 익힌다. 그 후 줄곧 미장공이 되어 일하게 되었고 아파트 신축 등 건설경기가 좋아지면서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지금은 마을출신이며 미장청부업자인

성○○의 밑에서 세화(작업반장)을 하면서 한달에 120~130만원을 벌고 있다.

주거지를 왕십리 영세민지역에 처음 정한 이후 8번을 이사다니다 1978년 왕십리에 무허가 주택을 구입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살아 오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대지 35평에 전평 20평(방 4개, 부엌 1)짜리인데, 1978년에 3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주택구입자금의 마련은 그 동안 저축했던 돈과 방 2개를 전세놓아 해결하였다. 현재가격은 재개발예정지역으로 평당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본인이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은 대단하였다. 아들 둘 중 장남(28세)은 대학원까지 졸업시켰고, 2남도 대학에 진학시켜 2학년에 재학중 군에 입대하고 있다. 아들의 학비마련을 위해 본인은 술을 멀리하였고, 부인도 부업으로 집에서 뜨개질을 하였으나 1985년부터 아들들의 반대로 그만 두었다.

부모는 고향마을에 살았으나 부친이 1978년에 사망한 후 모친을 모셔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장남은 결혼 후 성남에 거주하며 K업체에, 자부는 실내장식하는 개인업체에 취업하여 맞벌이를 하고 있다.

한달 평균 생활비로 40여만원 지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음식물비가 20여만원이 되고 있다.

저축으로는 2남 학비마련을 위해 적금을 월 30만원(15개월 불입) 씩 붓고 있으며, 월 30만원(3회불입) 씩 계돈도 붓고 있다.

친목계는 고향 친구 7명으로 1975년에 조직된 것이 하나 있다. 매월 23일날 계원집을 차례로 방문하며, 어려운 일을 의논하고 상호도움을 주면서 친목을 도모한다. 월회비는 1만원으로 적립하였다가 자녀결혼 시 금 1냥을 부조하고 부부동반관광여행비용으로 쓰고 있다.

현재의 생활수준을 중의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농에 대한 평가도 그저그렇다고 보고 있다.

고향에는 아직도 논 2,000평이 있어 임대수입으로 쌀 15兜를 받고 있다. 농지는 계속보유하고 있다가 장남에게 상속할 계획으로 있다.

고향에는 일년에 1~2차례 가는 것이 전부이고 고향친척도 1~2차례 정도 밖에 오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박○○씨의 적응에 영향을 준 요인은 기술(미장공)보유와 절약위주의 건실한 생활자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3 양○○, 61세, 무학, 무직

양○○는 3살 때(1931) 모친을, 6살 때(1934) 부친을 여의움으로써 13세 때까지 마을내에서 어렵게 사는 큰 집과 작은 집에서 자란다. 부친은 논 600평을 경작하며 떠돌이 약장사를 하였다하나 부모가 모두 병사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학교는 다닐 엄두도 못냈고, 14~15세 때는 남의 집 깔며슴을 벼 1.5파씩 받고 한다. 16세 때는 아들이 없는 큰 댁으로 와서 농사일을 하다 23세 때에 군에 입대하여 무명지전투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명예 제대(상이용사 6급) 한다. 제대 후에도 계속 큰 댁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25세에 중매결혼을 한 후 그해에 마을네로 분가한다.

분가 후 농사라야 큰 집 산전 2,000평을 어울이 짓는 것이 전부여서 생활은 어려웠다. 농한기에는 삼발을 엮어 4십리길 금산장을 걸어다니며 내다 팔아 부족한 식량을 팔아먹었지만 먹고살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남의 집 행랑살이를 면해 보려고 무단별목하여 집짓던 일이 고발되어 이를 해결하는데 쌀 10파정도가 들었고 부채로 남게 되었다. 산전에 심은 담배(900평)가 병이 들어 폐농함으로써 그 해에 먹고 살 길이 막연하여진다.

이럴즈음 같은 마을에 사는 고종사촌이 도시에 나가 막벌이한들 지금보다 설마 못살기야 하겠느냐며 같이 이농할 것을 제의받는다. 이에 본인도 아직 젊은데 남의 산전부쳐 먹는 것보다 못할리야 있을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마침 장녀와 이녀가 대전에 나가 제과공장에 다니고 있어

이농하기로 작정한다.

1971년(당시 42세) 봄에 부인과 5남매는 놔둔 채 혼자서 고종사촌과 함께 대전으로 나와 석교동 산비탈에 샷월세방(월 1만원)을 얻어 두 딸과 정착한다.

아무런 생활방도 없이 나온터라 한달 정도는 공사판을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부탁하면서 막노동을 한다. 그러나 몸이 성치않아 힘이 들었고 벌이도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과 같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에 살던 분을 만나 사는 얘기를 하던 중 막노동보다 힘도 덜 들고 잘만하면 수입도 괜찮으니 보따리 옷장사를 한 번 해보라는 권유와 함께 아는 사람을 소개받는다.

그 사람을 따라 보따리 옷장사(1971.4~1971.9)를 시작한다. 옷은 중앙시장에서 구입하여 주로 옥천, 금산일원의 5일장을 찾아 다니며 팔았다. 배장사는 되었으나 장사경험도 없고, 또 물건도 잘팔리지 않아 역시 먹고 살기는 힘이 들었다. 보따리 옷장사를 하던 중에 시장에서 천동에 거주하던 이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모로부터 사정동에서 복숭아과수원을 하는 김씨가 고용원을 구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면 괜찮을 것이라며 가보라는 권유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김씨를 찾아가게 되었고, 김씨로부터 한달에 쌀 1斗와 거처할 곳을 제공받기로 하고 1971년 가을부터 1976년까지 그 곳에서 지낸다. 1971년 가을에 고향에 있는 석구를 모두 그 곳으로 이주시켜 같이 생활한다. 과수원일은 농사일을 해 본 경험이 있어 어려움지는 않았지만 돈이 모이지 않았다.

1977년에는 과수원을 나와 산성동에 방2개에 부엌이 빌린 전세방을 50만원에 얻어 1978년까지 거주한다. 산성동으로 이주한 후 본인은 막 노동을 하며 지내다가 1984년부터는 통장일을 하며 소일하고 있다. 부인은 1977년부터 모 버스회사 세차부로 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다니며, 월급으로 20만원을 받고 있다.

양○○는 1979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여 11년째 거주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대지 44.5평에 건평 18평인 브록크벽돌집이다. 이 집은 친구의 소개로 660만원에 구입한다. 원래 분양가격은 600만원이었으나 집 부근에 빼스 정류장이 생긴다고 60만원이 인상되었다. 주택구입자금은 원호처에서 극빈원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장기·저리 은자금 300만원과 전세대금 150만원과 큰 사위한테 200만원을 빌려 충당하였다. 큰 사위한테 빌린 돈은 그동안 돈계(50만원과 100만원짜리)를 들어 갚아 주었고, 원호처 은자금은 월 16,000원씩 갚아 나가고 있다. 현재 주택가격은 3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으나 건물이 날림으로 지어져 벽에 금이가는 등 재건축을 해야 할 형편에 있다.

2남 5녀 중 2남과 5녀만 고등학교까지 가르쳤고, 나머지 자녀는 중학교까지 밖에 가르치지 못했다.

장남(31세)은 타이루 기술자로 취업을 하고 있으나 자기집 마련(현재 동거 중)을 위한 저축을 하기 위해 가구소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남(29세)은 원호청 후원으로 이리 직업훈련소(귀금속)에서 1년간(1986) 직업훈련을 받고 이리 공단에 취업 중 심장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집에서 요양중에 있다. 4녀(21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는 부인을 대신하여 살림을 하고 있고, 5녀(18세)는 고3에 재학중이다.

양○○의 한달 평균소득은 42만원(부인 20만원, 원호연금 15만원 통장 수당 7만원)이다. 이 중 40만원 정도가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어 저축은 전혀 못하고 있다.

양○○은 부부 모두가 친목조직에 가입 하고 있다. 본인은 동네사람 10명과 14명으로 조직된 친목계에 가입하고 있는데, 모두 월회비는 5천원으로, 애사시에 쌀 1斗의 부의금과 매월 1회씩 모여 하는 저녁식사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부인이 가입하고 있는 친목계도 동네사람 15명과 13명으로 조직된 것으로 월회비는 5천원으로 애경사시 쌀 1斗 부조와 매월 1회씩 모여 하는 간단한 저녁식사비용에 쓰이고 있다.

현재의 생활정도를 하의 하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농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시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금이 마련되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할 계획이나 현재의 수입과 앞으로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함으로서 자금마련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향방문은 명절, 제사, 애경사 때를 기하여 연중 5~6회 정도 하고 있고, 고향 친척들도 연 2~3회 정도 찾아 오고 있을 정도이다.

사례 4 박○○, 35세, 국졸, ○의대 병원 9급 기능원

박○○는 전북 순창군에서 3남 1녀 중 2남으로 태어난다. 그 곳에서 7세때까지 살다가 부친을 따라 금산군 남이면으로 이주한다. 부친은 화전개간으로 밭 1,000평을 경작하고 남의 논 농사도 1,000여평 지었지만 6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매우 어려워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채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한다.

결혼은 현재의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동료직원의 중매로 언니가계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현재의 부인과 하게 되며, 돈이 없어 간략하게 한 다했어도 30만원이나 들었다.

박○○이 농촌을 처음 떠난 것은 1972년 17세 때이다. 농사일에 삶증이 났고,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지어 보아야 장래성이 없을 것 같아 도시에 나가 돈을 벌 생각에서 무단 가출하여 대전으로 온다. 3일 동안 이곳 저곳 찾아다니며 구직활동을 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마침내 중국 음식점 뾰이로 있던 고향 선배를 찾아가 선배의 소개로 중국 음식점 뾰이가 된다. 숙식만 제공받는 조건으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수소문 끝에 찾아 온 형한테 이끌려 고향에 다시 돌아온다. 고향에 돌아 와서도 농사일이 삶증나면 무단 가출하기를 1975년까지 3~4차례 한다. 1976년에는 큰 형이 충북 청원군으로 이주하게 되어

형을 대신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화전정리로 산전 1,000평을 경작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화전정리 이주보상비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모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생계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이주를 원치않아 보상금도 받지 못한다.

남의 논·밭을 부쳐 농사지어 보았지만 농사수입은 벼 15파와 두류 4~5파가 전부 이었고 1978년에는 비배관리의 잘못으로 논 농사(1,000평)를 망쳐 겨우 영농비 정도만 건지게 된다. 200만원을 투자한 인삼(200평)마저 병이 들어 50~60여만원 밖에 건지지 못한 데다 어울이 소마저 죽게 되어 그럭저럭 부채만 100여만원 늘어가게 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영농의욕을 완전히 상실하여 폭음 빈도가 늘어지면서 동네사람에게 화풀이겸 행패를 하니 동네사람들이 좋아할리가 없게 된다. 이에 부모를 남겨둔 채 1979년 6월에 서울로 올라온다.

서울에 올라와 막노동을 하던 중 인천 소재 직업훈련소에서 미장공 직업훈련을 한다는 말을 듣고 2개월 과정의 기술교육을 받는다. 기술교육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받았으나 연령 미달로 송출되지 못한다. 그 후 대전으로 내려와 고향 친구소개로 미장공으로 일당 6천원을 받으며 3년(1980~83)간 일했으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아 오야지와 싸우고 그만 둔다. 그 후 목공일을 일당 10,000여원씩 받고 4개월 하다가 다시 미장일을 (1985년 12월) 일당 15,000~16,000원씩 받고 한다.

겨울철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을 때 미장일을 같이 하던 친구의 소개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의 잡역부로 취업하여 월 65,000원을 받으며 일하다가 1988년 10월에 9급 기능원으로 정식 발령받아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진료실과 검사실로 안내하거나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의사 처방전이 전문영어로 되어 있어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실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 처음에는 혼도 많이 맞고 애를 먹는다. 그러던 중 친절한 간호원의 도움으로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며 익히고 본인도 피나는 노력을

하여 일을 배워 나감으로써 지금은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다. 업무가 서투를 때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압력이 있었으나 직원들과 맷은 친목계원들이 방패막이를 해줘서 견딜 수가 있게 된다.

박○○이 이농을 통한 주거정착상황을 병원에 근무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 보면 1972~75년 무단 가출을 하던 때가 4~5번, 서울로 상경해서가 1번, 대전에서 목공일, 미장일을 하면서 2번 옮긴다.

병원에 취업이 되어서는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문화동 주택가에 삽월세(3만원) 방을 얻어 자취생활을 한다. 한옥 기와집으로 주인 대학생 2명과 본인 등 4세대가 수도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했다.

1986년 1월~1987년 11월의 1년 동안은 적은 월급(65,000원)으로 삽월세(3만원)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되어 이를 절약하기 위해 병원내 지하창고에서 지낸다. 시설과 지원한데 사정을 하니 눈치껏 해보라는 연질들 주어 생활하였으나 너무나 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하여 주거지를 집값이 저렴한 문화동 영세민촌에 삽월세방(월 2만원)을 얻은 후 1년간 지낸다.

1989년 1월에는 결혼하여 신정동 주택가의 2층 양옥집에 400만원 전세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으며, 1990년 9월에는 전세금이 50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족액 100만원은 부채를 얻어 충당한다. 주택마련을 위해 재형저축(3년 만기 400만원, 월불입액 8만원)과 투자신탁에 저축(1,500만원, 월불입액 145,000원)을 하고 있다. 재형저축 가입으로 공무원주택분양 신청자격이 있으나 분양받더라도 돈이 없어 입주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50세가 되어도 내집 마련은 난망하기만 하단다.

박○○은 현재의 직장 생활 이전까지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의식적으로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친구도 사귀면 친목조직에도 가입한다.

1986년에는 직장동료 12명으로 우정회를 조직한다. 월회비는 5,000

원으로 적립하여 부모상고시 쌀 2斗를 부의하는데 쓰고 있다. 매월 1회씩 만나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친목을 다지며, 저녁식사경비(2~3만원 정도)는 회원이 돌아가며 부담한다. 이외에도 같은 병동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6명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박씨(본관은 관계없음) 직원 12명으로 조직된 친목모임에 가입하고 있다.

월소득은 봉급 542,000원(기본급 177,000원)과 기본급에 대한 상여금 500%가 전부이다. 생활비는 월평균 16~17만원으로 이 중 음식물비는 9만원 정도이다. 생활비의 지출이 적은 것은 주택마련을 위한 강압저축(월 235,000원)을 하기 때문이다.

부채로는 전세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위해 빌린 100만원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13,000원씩 지불하고 있다.

현재의 생활수준은 하의 상으로 보고 있으며, 전축, 칼라TV,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가전제품만을 보유하고 있다.

정년퇴임 후(58세)에는 농촌에 가서 살고 싶으며, 그 이유는 공기 좋고, 노력만 하면 잘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5 정○○, 57세, 무학, 막노동

4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농사일을 하다가 22세(1955) 때 동네 혼인을 한후 바로 마을내로 분가하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었다. 부부가 화전을 개간하고, 품팔이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가운데 논(700평)과 밭(600평)을 장만하여 이농 직전(1980)까지는 소도 한 마리 키웠다. 슬하에 자녀는 7남매(3남 4녀)를 두고 있다.

정○○이 농촌을 떠나 온 해는 1980년으로 당시 나이는 47세이다. 나이 먹어 이농을 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다. 1973년부터 화전정리사업

으로 산전의 개간·경작이 불가능해져 소유전답(1,300평) 만으로 9식구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데다 장남의 중학 진학을 대전으로 유학시키고 보니 장남의 뒷바라지를 농사만 지어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대전으로 나가 막벌이라도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이 농할 것을 결심한다.

대전(과남동)에 거주하며 노동일을 하던 처남을 2차례 찾아가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소를 팔아(53만원) 그 돈으로 인동의 영세민 밀집지역에 삼월세방을 얻은 후 본인과 3녀만 먼저 이주한 후 장남과 같이 3식구가 정착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부인과 나머지 자녀는 마을에 남겨 놓았으나 1년간의 도시생활을 통해볼 때 농사짓는 것보다 벌이가 괜찮아 이듬 해 나머지 식구들도 대전으로 이주시킨다.

가족이 합류한 후 신흥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부엌이 딸린 방 하나에 온 식구가 거주하게 된다(1981~81) 처조카집이라 방값을 싸게 얻었으나 삼월세만도 월 3만원이나 되었다. 3세대가 수도와 변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편은 보통이 아니었다.

대동의 영세민촌에 방 2개짜리 삼월세 방을 얻어 6년간(1982~87)을 살아온다. 애들도 크고 하여 방을 2개 사용할 목적으로 옮기긴 했지만 영세민촌에 있는 주거의 물리적 상태가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인 데다 3세대가 변소와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삼월세값이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어 다시 이사한다.

현재 살고 있는 삼월세방(월 5만원)은 용운동의 영세민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방수는 2개(부엌이 딸림)로 수도는 각자 사용하고 있으나 4세대가 변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이 대전으로 이농하여 처음 취업한 곳은 고물수집상에서 일당 6천원을 받는 날품이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거운 고물을 푸고 싣는 일을 하지만 월평균 벌리는 15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고물상에서의 일은 너무나 힘이든데 비해 일당이 낮아 1년간 종사하다 그만둔다.

1981~86년까지는 친구의 소개로 리어카 행상을 하게 된다. 중고리어카를 구입한 후 새벽 다섯 시경에 삼선시장과 역전시장에 나가 야채와 과일을 받아 문창, 옥계, 대동 일원의 주택가 골목길을 누비며 물건이 다팔릴 때까지 돌아다녀야 했다. 하루에 보통 이삼십리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벌이는 괜찮아 하루에 1~2만원씩은 벌렸으나 궂은 날에는 행상을 할 수 없어 한달 수입은 3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1987년부터는 리어카 행상을 하면서 알게 된 일행의 권유로 옥수수뻥튀기 장사를 하게 된다. 이 장사는 3명이 일행이 되어 도매상에서 물건을 실어다 주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일원의 시장을 찾아 다니며 물건을 팔아 주는 것으로 수입은 물건파는 양에 따라 달랐지만 일당 2~3만원 벌이는 되어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나 이 장사일도 1988년 4월에 늑막염으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관계로 할 수 없게 된다.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그해 10월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1988년 11월부터는 다시 리어카 행상을 시작하나 12월에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상을 당해 1989년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받았으나 자녀교육비와 생활비에 사용되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6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였고, 1990년부터는 리어카 행상과 건설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닥치는 대로 하고 있다. 건출일은 나이가 먹고 기술이 없어 데모도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당은 15,000원 밖에 받을 수가 없는 데다 일거리도 계속 연결되지 않아 한 달 수입은 30여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7남매 중 위로 딸 셋은 출가시켰고, 3남 1녀가 미혼으로 있다. 장남(25세)은 세째 사위의 도움으로 울산공대 전자공학과에 재학중이고, 2남(22세)은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국학과에 다니다가 현재는 군 입영으

로 휴학중에 있다.

2남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대전에 있는 연정국학원 원장의 등록금 지원 등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2남은 어려서부터 피리를 잘 불었고 고등학교 때에는 연정학원에서 대금을 배웠는데 그 소질을 원장으로부터 인정받아 원장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진학을 승낙하게 되었으나, 부모로서는 학비마련에 여간 힘이 들지 않고 있다. 3남(20세)은 실업전문대에 재학 중 군 입영으로 휴학중에 있으며, 4녀(18세)는 여상 졸업반으로 공부를 잘 하여 현재 중부건설회사에 취업 예정으로 있다.

정○○이 어려운 생활중에서도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영세민으로 지정받아 자녀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고, 부인이 이농직후(1981~87)부터 시홍시장과 역전시장에서 야채행상을 하며 일당 5천여원씩을 벌고, 자녀들도 장학금을 받거나 방학중에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여 학비를 벌었기 때문이다.

한달 평균 수입은 40~50만원(부인 20여만원)으로 이 중 생활비로 35~4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어 저축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부채로는 등록금마련 때문으로 지게 된 40만원이 있다.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으로는 전화, 냉장고와 가스렌지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수준도 하위 하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농한 것만은 자녀교육을 고려할 때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택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염두도 못내고 있었으며, 앞으로 도시에 계속 거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귀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의 하나로는 시골에 남겨 둔 농지의 처분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농지는 산간오지에 있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형님이 쌀 1斗의 임차료를 주고 경작하고 있다).

고향에는 제사, 명절 때 등 5~6회 정도 방문하고 있으며, 형님도 연간 2회 정도 다니러 오고 있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의 경제 추구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에 대한 이농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경제·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발전만을 지향키 위한 이농이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추진될 때 이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이농민 자신과 도시사회의 문제까지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사회적 부작용 또한 클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농업발전을 지향키 위한 이농은 이농민의 적응력을 감안하여 선택적 과정으로서 또한 이농민의 성취지위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과정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이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촌농가 중에서 어떤 농가를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농시킬 수 있느냐 하는 선별적 이농 가능성에 대한 타진과 이들의 이농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① 이주자가 이입지에서 적응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적응매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기존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② 재촌가구주들에 대한 선택적 이농가능성과 이주자녀를 연결고리로 한 가족결합을 통한 연결이주 가능성 및 이주가능유형별 이주

경로와 문제점을 탐색하고 ③ 기존 이농민의 도시정착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여 이들이 생업 및 주거문제 해결 등 도시적응을 위한 자원동원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적응에의 도움적(또는 장애적)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재촌가구의 이농을 대비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함의제시를 연구내용으로 함으로써 이농대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코자 하였다.

이 연구는 5개 마을을 조사지역으로 200명의 가구주에 대한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와 조사마을에서 이출한 이농민 22명을 연고자에 의한 추적조사를 통한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들의 이주 및 도시정착과정에 관한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촌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42.0%, 국졸 이하 저학력소지자는 78.0%, 무농지 및 1,500평 미만 농지소유자는 56.0%나 되었고, 비농업 및 겸업종사자는 17.5%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재촌가구주의 배경적 요인에 비춰볼 때 재촌가구주 중에는 이농시 직업획득 및 직업전환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력과 적응력 수준이 미약하며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전가족 이농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촌가구의 부분가족 이주자 및 기혼별거 이주아들의 수는 해당 각각 1.23명과 0.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가족 이주자녀 중 54.8%가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안정적 직업인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는 7.1%에 불과하였다. 기혼별거 이주아들도 56.7%가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고, 전문관리직(3.0%)과 사무직(3.0%) 등 비교적 안정적 직업에의 종사자는 6.0%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기혼별거 이혼아들 중 내집 소유자는 36.0%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혼별거 이주아들의 직업과 주거상황을 고려할 때 재촌가구주의 30% 정도는 기혼별거 이주아들을 연결고리로 한 가족결합을 위한 이주의 가능성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이것도 장남의 부모봉양 관행, 세대차에 의한 부자간·고부간의 갈등, 재촌부모의 도시생활 무경험과 도시생활의 답답함 등에서 파생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감안할 때 재촌가구주의 가족결합을 통한 연결이주의 실현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촌가구주의 이농의사에 기초한 이농가능유형별 이농가능성을 보면 31.7%가 선택적 이농의 가능성을 보인 반면 69.3%는 이농의 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이농가능성을 보인 31.7% 중에서 10.2%는 아들이 도시에 완전정착하고 있어 그 아들네로 언제든지 이주가 가능한 가구(완전가족결합 이주가능형)로, 8.6%는 아들이 정착해야만 그 아들네로 이주가 가능한 가구(불완전 가족결합 이주가능형)로, 3.8%는 아들을 이주시킨 후 그 아들이 정착하면 이주가 가능한 가구(잠재적 가족결합 이주가능형)로, 9.1%는 자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이주가 가능한 가구(독단적 이주가능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전가족결합 이주가능형(19호) 중에서도 5년 이내 이주하겠다는 가구주는 단지 2명(10.5%)에 불과하였고, 불완전 가족결합 이주가능형(16호) 중에는 아들이 완전정착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10년 이내가 단지 2호에 지나지 않았다. 독단적 이주가능형(17호) 중에도 여전히 준비되면 이주하겠다는 가구주가 12명(70.5%)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내용에 견주어 볼 때 재촌가구의 실제적인 이농의 실현성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재촌가구주의 이농을 저해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금부족(43.1%)과 노령·무기술(34.8%)이, 도시적 요인으로는 도시생활의 답답함과 소외감(40.5%)과 주거문제(36.8%)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응은 재촌가구주 중에는 노령에 저학력·무기술 소지자와 자본보유력이 낮은 자들이 많아 이들의 이농시 주거문제의 해결과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에의 자신감 결여와 전원적이고 원초적 지역집단인 마을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자들이 이웃도 없는 익명사회인 도시생활에서 겪게 될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에

서 기인된 결과로 보여진다.

다섯째, 이농민들은 도시정착과정에서 생업문제 해결보다 주거문제 해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거문제 해결에서 농촌의 자산 처분, 무허가 주택의 점유, 해외근로자 파견을 통한 뜻돈마련, 재촌부모의 경제적 지원, 근검절약에 의한 저축 등이 도움적 요인이 된 반면, 자녀 대학교육 이수, 무유산, 도시정착기간의 짧음 등은 장애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업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기술보유, 고학력, 연줄 및 부인(가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도움적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노령, 무기술, 저학력 등은 장애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문제는 재촌 가구주와 도시 거주자녀와의 가족결합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이었고, 도시이농민 중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저축과 주택청약예금에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한 이들이 내집마련의 실현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재촌가구의 자발적 이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농가능한 가구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통해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을 이수시켜 직업전환과 직업획득을 위한 잠재력을 강화하고, 이입지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도모키 위한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로, 이주자녀와의 가족결합에 의한 연결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재촌가구주의 도시생활에서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인력의 고용기회 확대가 사회보장적·사회사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자녀들 중 주거문제로 재촌가구주의 연결이주를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주택청약 및 영구임대주택의 우선적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대기, “농촌이주희망자의 특성과 이주조건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16집, 1985.
- 권태환, “한국사회에 있어서 도시연구,” 「한국사회학」, 제18집, 1984.
- 김대환, “사회이동으로서의 이농현상,” 「한국사회학」, 제2집, 1966.
- 김정연, “농촌인구의 이동과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문승규, 「농촌자녀의 이출에 관한 연구: 전북 2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72.
- 박계영, “무허가 정착지주민의 경제적 행위에 관한 일고찰,” 이대 석사논문, 1983.
- 박영숙, “도시빈민주민의 경제적응방식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4.
- 박재규, “도시빈민지역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성대 석사학위 논문, 1985.
- 서관모,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사회통계적 연구,” 「산업사회연구」, 제1집, 산업사회연구회(편), 한울사, 1985.
- 석현호, “한국농촌 이촌가구의 사회학적 고찰: 도시로 이주한 사람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71.
- 성진근, “한국의 농촌과 도시지역간 인구이동,”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연세대 출판부, 1988.
- 윤근섭, “농촌인구의 이출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 농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87.

- 윤여덕 외 3인, 「농촌인구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983.
- _____ 외 1인, 「이농민의 도시적응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농 촌 경제연구원, 1984.
- 이온죽, “도시이입자의 적응연구,” 「한국사회학」, 제13집, 한국사회학 회, 1979.
- 이응교, 「이촌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원, 1989.
- 이효재, 허석열(편),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1983.
- 임창호외 2인, 「도시반곤총대학에 관한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9.
- 임희섭, “빈곤에 대한 사호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12집, 1978.
- 정동익, 「도시빈민 연구」, 아침, 1988.
- 조 형, 「한국의 도시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982.
- 최재석, 「한국농촌 사회변동 연구」, 일지사, 1988.
- 허석열, “도시무허가 정착지의 고용구조에 관한일연구,” 「한국사회연구」, 제1집, 한길사.
- 황명찬, 「지역개발론」, 경영문화원, 1984.
- Bromley, R. L. and C. Gerry., *Caused Work and Poverty in the Third Worl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9.
- Browning, H. L. and W. Feint., “Patterns of Migration to Monterey, Mexico,”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5 (1971).
- Choldin, H. M. Kinship, “Networks in the Migration Proc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7. 1973.
- Fielding, G. J.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2.
- Eisenstadt, S. N., “Analysis of Patterns of Immigration and Asorption of Immigrants,” in T. S. Ford and G. H. Jorg (eds.) *Social*

- Demograph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70.
- Graves, N. B. and T. D. Graves., "Adaptive Strategies in Urba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3, 1971.
- Green, S. C. Migration Adjustment in Seoul, Korea: Employment and Housi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2, 1978.
- McGee, T. C. "Malay Migration to Kuala Lumpur City," in B. M. Du Toit and H. I., Safa (eds.), *Migration and Urbanization*, New York: Mouton Publishers. 1975.
- Melville, M. B. "Mexican Women Adapt to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2, 1978.
- Moore, J. W., "Mexican Americans and Cities: A Study in Migration and the Use of Informal Resourc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5, 1971.
- Sjoberg, G., "Cities in Developing and in Industrial Societies: A Cross-Cultural Rural Analysis," in Philip M. Hauser and Leo F. Schnore (eds), *The Study of Urb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9.
- Tilly, C. and C. H. Brown, On Uprooting, Kinship and Auspices of 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8, 1967.
- Todaro, M. P.,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1969.
- Wolpert, J., "Migration as an Adjustment to Environmental Stres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2, 1966.

빈

면

연구보고 228
이농·탈농의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

작은날 1990. 12. 펴낸날 1990. 12.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작은곳 (주)문 원 사 739-391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